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한인회 이사회, 정장 차림에 국민의례

구정회 이사장 선출, 11명 이사 참석  
한인회 민원 상담 직원 채용키로



김경원 회장 체제 출범 후 개최된 첫 이사회, 왼쪽부터 노명호, 정제형, 구정회(이사장), 김도운(사무총장), 김경원 회장, 김영곤, 허훈 이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김경원 회장의 출범 후 열린 첫 이사회에 이사진들이 대부분 정장 차림으로 참석, 한인회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분위기를 일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30일 우편 소재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총 11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언론에게 공개된 채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까지 순서에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김경원 회장의 추천을 받은 구정회 전 보스톤체육회 회장이 만장일치의 동의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사장 선출에 앞서 이날 참석한 11명의 이사와 참석하지 못한 3명의 이사 총 14명의 신임이사 인준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가 토의한 중요한 안건으로는 한인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직원 채용, 이

사회비 조정, 회칙 변경, 각종 한인회 행사 공지 등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인회 전화번호(781-933-8822)로 전화를 걸면 박진영 한인회보 편집장이 전화를 받게 되어 있다. 한인회보 편집과 더불어 한인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한인들의 모든 전화 문의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박진영 편집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인회보로 오는 전화의 90%는 한인회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전문가를 소개시켜주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문의를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김경원 회장은 “따뜻한 부모와 고

▶▶2면으로 계속

## 동양인답지 않아야 명문대 입학 가능

명문대 입시, 아시안 역차별 두고 복잡한 논란  
전체 인구 5% 하버드 등 명문대에선 20%대  
높은 SAT, GPA이 보유, 동양스러우면 탈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명문대 입시에서 아시안 역차별이 점차 심화되고 하버드의 아시안 역차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동양계 학생들은 가장 동양인답지 않아야 명문대 입학이 수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는 6월 1일 명문대 입시 컨설턴트인 아이비 코치의 브라이언 테일러 대표의 말을 인용해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전략에 대해 보도했다.

테일러 대표는 “비록 논란이 많지만 우리의 전략은 동양계 학생들이 지원할 때 가장 동양인답지 않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부 별레에 높은 학점을 취득한 동양계 학생들이 대학 지원서에서 동양인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슬픈 역발상이다. 이미 대부분 명문대에서 동양계 학생들이 타인종에 비해 미국 전체 인구 구성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동양계의 근면성과 치열한 경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 전문

From **\$1095**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비수기 특가

대한항공+국내선 (뉴욕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출발기한은 2015년 7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또한 발권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항공권 예약상황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이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취도 외면한 참정권, 이번에는 다를까

내년 총선 대비, 총영사관 29일 모의선거 실시  
8일부터 12일까지 총영사관에 접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모의재외선거가 오는 29일로 다가왔다.

지난 2012년 2.52%라는 처참한 투표율을 기록한 참정권에 대한 외면이 2016년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2016년 재외선거는 2012년과는 달리 선관위의 재외선거관 파견 없이 보스톤 총영사관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투표율이 불과 3%도 미치지 못한 것을 지켜본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재외동포 참정권 행사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버린 결과다.

참정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투표를 외면하고 국회의원들을 재외동포들을 외면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실시되는 모의 선거는 2009년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2010, 2011년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260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는 20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제 19대 총선 때 재외국민의 실제 투표율은 2.53%로 저조했다. 이번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재외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총영사관 주재로 실시되는 재외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키 위함이다.

보스톤 총영사관은 모의선거에 대한 신청 자격과 신청서를 지난 1일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참가신청 대상은 1996년 7월 9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서와 여권사본, 영주권 등의 국적확인 서류 등으로 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보스톤 총영사관 2층 민원실이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300 Washington street, #251, Newton, MA 02458, 이메일의 경우 boston-vote@mof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8일부터 12일까지 하면 된다.

모의 선거는 실제 선거 절차와 똑같이 진행되며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와 정당이 가상으로 표시되는 것만 다르다. 모의 선거 신청자는 당일 투표소 방문 시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의 재외선거 신청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보스톤 총영사관 홈페이지 (usa-boston.mofa.go.kr)를 찾을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회의에 집중하고 있는 김경원 회장(가운데)과 김영근 고문(오른쪽), 김도운 사무총장

## 민원 상담해줄 상주 직원 채용, 한인들의 따뜻한 부모와 고향되어야

▶▶1면에 이어서

향이 되어줄 수 있는 한인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원도 상담해주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친절히 연결해줄 수 있는 한인회 사무실 상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는 직원 채용이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일자 한인회 회원 관리를 맡은 풀타임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한인회 행사 공지로 마무리되었다. 다가오는 한인회 행사로는 5일 뉴욕 태권도 축제 나들이와 28일에 열릴 7080 콘서트, 7월에 있을 골프 토너먼트 등이 있다.

한인회는 보스톤 지역 한인 40명을 뉴욕 태권도 축제 나들이에 초

대해 교통편과 식사를 무료 제공한다. 김도운 사무총장은 "많은 한인분들이 신청해주셔서 대기자 명단까지 있다"며 "안타깝게도 버스 정원에 따라 선착순 40명만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8일에는 장계현과 템페스트,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 등 대한민국 7080을 장식한 밴드 가수들이 보스톤에서 공연을 갖는다. 입장권은 \$60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경원 회장을 비롯해 구정희, 김영근, 한선우, 정제형, 김도운, 이경해, 변성우, 허훈, 장수인, 노명호 이상 11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전명호 사무차장이 서기로 참석했다. 유영심, 이영호 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7080 향수 자극하는 스타들이 보스턴에 온다

사랑과 평화, 장계현과 템페스트 등 그룹밴드 초청  
“신나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공연을 마련했다”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턴 한인회(회장 김경원)가 주최하는 7080콘서트가 오는 28일 일요일 우번 소재 우번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70년대, 8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대한민국 밴드 뮤지션이 출몰하는 이날 공연에는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 디 패밀리의 이천행, 영사운드의 유영춘, 함중아와 무서운 아이, 장계현과 템페스트, 대학가요제그룹 건아들의 이창환 등이 무대에 오른다.

행사를 기획한 김경원 회장은 “신나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공연을 마련했다”며 “즐길 준비가 되어있는 뉴잉글랜드의 한인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번 고등학교 강당은 45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연의 입장료는 \$60이다. 입장료 예매는 보스턴 한인회(781-933-8855)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회는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보스턴 총영사관과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전미태권도 교육재단, 보스턴코리아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 우번 고등학교 (88 Montvale Avenue, Woburn, MA 01801)  
dyoo9146@bostonkorea.com



70년대, 80년대를 장식한 스타들의 콘서트가 오는 28일 일요일 우번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

## 재향군인회 보스턴연합회 이취임식 개최

김우혁 전 해병전우회 회장 선임

(보스턴 = 보스턴 코리아) 편집부 = 재향군인회 보스턴연합회의 신임회장으로 김우혁 전 해병전우회 회장이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이강원 전 재향군인회 회장과 김우혁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이 오는 21일 오후 6시 월담에 위치한 새빛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우혁 신임회장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인분들께 평소 향군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한인들이 이취임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취임식에 앞서 “친목과 화합은 중시하는 재향군인회로 잘 이끌어 주셨던 이강원 회장의 뜻을 이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재향군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새빛교회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김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형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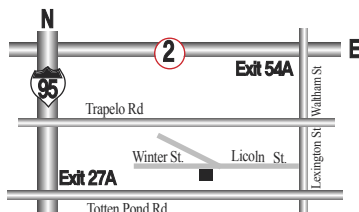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한인회 슬로건 공모전 마감, "함께 전진" 강조

1위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는 보스턴 한인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턴 한인회(회장 김경원)가 실시한 한인회 슬로건 공모전이 지난 5월 31일 마감해 이사회 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는 보스턴 한인회"가 한인회 슬로건으로 채택되었다.

한인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약 3주간 실시된 한인회 슬로건 공모전에는 고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이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공모전에 참여했다.

지난 30일 한인회관에 모인 이사들은 본격적인 이사회에 앞서 슬로건 선정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경원 회장은 슬로건 선정에 앞서 "명품 도시 보스턴의 한인사회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슬로건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히 '화합', '하나', '함께'라는 단어가 슬로건에 많이 사용되었고 이에 김경원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화합하고 단결된 한인회에 목말라 있는 것 같다"며 "하나된 한인회, 소통하는 한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30여개의 공모된 슬로건 중 1,2,3등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전예리 씨가 공모한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는 보스턴 한인회"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위를 수상했다. 그 다음으로 많

한인회 슬로건 수상작	
1등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는 보스턴 한인회
2등	나라사랑 동포사랑 보스턴 한인회 행복과 화합의 중심 보스턴 한인회 JUST DO IT 보스턴 한인회
3등	한마음으로 새롭게 보스턴한인회 미래를 꿈꾸는 보스턴한인회 친구같은 보스턴한인회 봉치라 보스턴 Pride of Korea, Pride of Boston 우여,복지 소통을 높이자 일상다반 나눔의 한인회 한결같이 모두 함께 전진하는 한인회 화합하며 함께 나아가는 보스턴한인회 하나로 보스턴

은 표를 받은 '나라사랑 동포사랑 보스턴 한인회'와 '행복과 화합의 중심 보스턴 한인회', 'JUST DO IT 보스턴 한인회'가 공동 2위에 올랐다.

1등 수상자에게는 최신행 갤럭시 노트 1대가 주어지며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100불 상당의 상품권(3명)과 20불 상당의 상품권(10명)이 주어진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6월 10일경에 있을 예정이다. 수상자들은 6월 30일까지 한인회를 방문해 소정의 선물을 찾아가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 무료 절전형 전구, 멀티탭 신청하세요

1 가정 1 패키지 신청, 7월 중순 배부 예정  
보스턴코리아 이메일로 신청 가능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턴코리아는 지역 한인이 거주하는 에너지 절약 패키지(LED 절전형 전구 2개와 멀티탭 1개)의 무료 배부 신청을 받고 있다. 한 가정당 하나의 패키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6월 말이다.

"보스턴 한인사회에 도움도 되고 위한 미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는 유강조 씨는 "\$60 이상의 패키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은 한인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유강조 씨는 무료 전구 배부를 주관하는 전구회사 메가라이트(Mega Light)의 사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무료 전구 배부를 보스턴 한인사회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지난 2년간 총 3만개의 절전형 전구를 보스턴 한인회에 기증해왔다.

1만개 또는 2만개 묶음으로 한꺼번에 배부되어 필요한만큼 가져갈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올해는 특별히 신청자들을 모아 신청 개수만큼만 배부될 예정이다.

7구 멀티탭과 함께 제공되는 LED 전구

는 기존에 배부되던 CFL 전구의 6~7배 가격으로 수명은 최소 5년이다. 시중에서 \$60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패키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LED 전구 2개와 멀티탭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 패키지를 원하는 가정은 6월 30일 까지 보스턴코리아 이메일(bostonkorean@hotmail.com)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해 보내면 된다.

보스턴코리아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보스턴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직접 픽업해야 하며 구체적인 배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무료 전구와 멀티탭은 보스턴코리아 외에도 브루클라인 소재의 보스턴한인교회를 포함한 일부 교회 단체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스턴 한인회(haninhoebo@gmail.com)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수레아트 갤러리 전시회 계절의 아름다움 캔버스에 담다

바닷가 작업실에서 느낀 겨울과 봄의 감성  
13일 오프닝 리셉션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유수레 화가의 전시회가 '깨어나는 아름다움 (Awakening Beauty)' 이라는 주제로 지난 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열린다.

뉴햄프셔 라이(Rye)에 위치한 수레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간단한 드로잉과 추상 페인팅 50여점이 전시된다. 유수레 화가가 바닷가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느낀 지난 겨울과 봄, 흐르는 계절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유수레 화가는 "관객들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산책하듯 (작품을 통해) 아름다운 기운을 느끼길 바란다" 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유수레 화가가 애착을 갖는 작품으로는 '깨어나는 아름다움(Awakening Beauty)' 과 '달의 재즈(Jazz of Moon)' 이 있다.

유수레 화가의 말에 의하면 "활기찬 봄놀림의 터치로 경쾌한 의욕의 색채와 추상적인 감성을 표현한 두 작품은 새로운 창작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고

늘 대작을 탄생시켜 온 유수레 화가는 교통사고 이후 소품만을 그려왔지만, 이번 전시의 몇몇 작품으로부터 "앞으로 더욱 새로운 창작을 탄생시키고픈 의욕을 느끼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계절의 변화를 담아낸



수레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유수레 화가의 '달의 재즈 (Jazz of Moon)'

드로잉과 추상 페인팅 외에도 한국의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미국인 관람객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하고 뽐내기 위함이다.

'깨어나는 아름다움' 전시회의 오프닝 리셉션이 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수레아트 갤러리 웹사이트(sooryeartgallery.com)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sooryeartgallery@gmail.com로 하면 된다.

**전시일정**

일시: 2015년 6월 2일~7월 31일

장소: 수레 아트 갤러리(11 Sagamore Road, Rye, NH 03870)

오프닝 리셉션: 2015년 6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dyoo9146@bostonkorea.com

# 청소년 한국문화 알리미 '아띠' 발표회 성황

수목화 그리는 간호사, 렌드레빌 참석  
한국에서의 의료봉사 경험 및 근현대 문화 나눠



지난 30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린 아띠 발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문화 청소년 홍보대사인 아띠(단장 장동근, 이사장 이강원)의 연례발표회가 지난 5월 30일 토요일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뉴튼 노스 고등학교의 오유진 학생(11학년)과, 내슈아 노스 고등학교의 김진 학생(10학년), 렉싱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장주은 학생(10학년)이 다양한 연구주제로 발표했으며 특별히 1970년대 평화봉사단 간호사로 한국에서 활동한 닐 렌드레빌(한국명 나노열)이 강연을 전달했다.

유네스코에 세계 역사유적지로 지정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 유적지의 소개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대해 발표한 장주은 학생에 이어 김진 학생과 오유진 학생이 각각 "고대 중국이 한국의 전통의학에 미친 영향" 과 "The Korean War: Forgotten or Successful" 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간호사 닐 렌드레빌 씨는 1970년대에 평화봉사단의 멤버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에 질병관리 및 예방을 위한 간호 봉사자로 와서 활동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렌드레빌 씨는 학생들에게 당시 평화봉사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는지 설명한 후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게 된 한국의 전통 문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풍경과 서민들의 생활상 등을 사진 자료와 스케치, 수목화 등을 통해 소개했다.

또한, 렌드레빌 씨는 70년대에 촬영했던 사진과 거의 반 백년이 지난 현재의 같은 지역 사진 자료를 보여주었다. 렌드레빌 씨의 발표를 통해 한국학교 학생들은 과거 한국의 생활상을 현재와 비교하며 관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화롭게 학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은 물론, 특별 방문 중이던 충북과학교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 강연장을 메웠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시원한 바다로~ 놀러가기 좋은 뉴잉글랜드 해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시원한 파도가 떠오르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분주했던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앞둔 아이들과 함께 해변으로 선물 같은 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뉴잉글랜드의 해변을 소개하기에 앞서 꼭 챙겨가야 할 해변 필수 아이템을 나열해본다.

### 해변 필수 아이템

파라솔 또는 텐트, 간이의자, 비치타월, 아이스박스, 바퀴 달린 카트, 비치 슈즈, 자외선 차단제, 샤워용품, 벌레 퇴치제, 물, 음식 등  
파라솔이나 텐트를 가져가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아이들을 지켜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에서 해변까지 한참 걸어야 할 수도 있어 바퀴 달린 카트를 가져가면 유용하게 쓰일 듯하다.

### ▶리버비치, MA

350 Revere Beach Blvd, Revere, MA 02151  
reverebeach.com

리버비치 (Revere Beach)는 대중교통으로



도 갈 수 있는 보스톤의 대표적인 해변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놀러가기 좋다. 블루라인 원더랜드 역에 내려서 5분만 걸으면 된다.

한편,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리버비치에서 모래 축제 (Sand Sculpting Festival)가 열린다. 입이 떡 벌어지는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지난해에는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60만명이 해변을 찾기도 했다.

### ▶싱잉 비치, MA

119 Beach St, Manchester, MA 01944



노스쇼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싱잉 비치 (Singing Beach)는 해변의 고운 모래가 서로 부딪히며 독특한 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해변'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반달형 곡선의 해변이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변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2세 이상 입장료는 \$5, 주차 요금은 \$25이다.

### ▶넌터스켓 비치, MA

45 Hull Shore Dr, Hull, MA 02045

보스톤 시내에서 차로 약 45분 떨어진 넌터스켓 비치 (Nantasket Beach)는 경치 좋게 쪽 뻗은 해변이 일품이다. 모래가 부드러워 산책하기 좋으며 해변의 한 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약 7마일로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파도가 높을 때에는 해변이 물에 잠기는 곳도 있으므로 일찍 도착해서 파도를 잘 확인한 후, 좋은 자리를 짚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며 바다 앞에는 리조트와 각종 맛집이 즐비해 가족 바다 여행으로 적합하다.

### ▶굿 하버 비치, MA

Thatcher Rd, Gloucester, MA 01930

gloucesterma.com/good-harbor-beach.cfm  
하얀 모래와 아름다운 풍경이 일품인 글로스터의 굿 하버 비치 (Good Harbor Beach)는 여름이면 바다를 찾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다. 썰물에는 눈앞에 보이는 솔트 아일랜드까지 걸어갈 수 있



기도 하다. 주차 요금은 평일에는 \$20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25이다.

### ▶햄튼 비치, NH

160 Ocean Blvd, Hampton, NH 03842  
hamptonbeach.org

뉴햄프셔 소재의 햄튼 비치 (Hampton Beach)는 미국의 깨끗한 해변으로 3위 안에 손꼽히는 관광 명소다. 깨끗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히 가족전용 화장실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요금은 \$15로 일찍 도착할 수록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모래 축제가 열리며 7월부터는 불꽃놀이, 무비 나잇, 미스 햄튼 비치 대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펼쳐져 볼거리가 풍성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보스턴 총영사 태권도컵 대회 성황

500여명 참석, 태권도 알리는데 한 몫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총영사 태권도컵 대회가 지난 5월 30일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이스트 그린위치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려 선수 및 관중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회식에는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 내외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성혁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장, 마이클 아이삭스 시장, 빅터 머큐리어 교육감을 비롯해 뉴욕, 코네티컷, 뉴잉글랜드 지역의 태권도장 수련생들과 사범들이 다수 참석했다.

대회 중반에는 데이비드 시실리니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행사에 앞서 흥진섭 대회장은 머큐리어 교육감에게 국기원 명예 3단, 엄성준 총영사에게는 국기원 명예 4단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으며 다양한 송판 격과 시범을 선보여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부터 팀 시범 경기가 진행되었다. 3세에서 78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품세, 겨루기 격과 기술을 보이며 기량을 겨뤘으며 대회장 한 쪽에는 전문 의료진들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다.

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한국과 독도에 관한 책자가 제공

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전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특히 흥진섭 관장은 \$1,000의 기금을 학교폭력 방지기금으로 머큐리어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시실리니 연방 하원의원은 흥진섭 관장에게 지역 공립학교에 태권도 수업을 지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태권도 대회는 보스턴 총영사 관(총영사 엄성준)이 후원하고 로드아일랜드 주 태권도협회(흥진섭 관장)이 주관했다. 흥진섭 관장은 30여년간 태권도 보급을 위해 힘썼으며 15기 평통회장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위) 지난 30일 로드아일랜드 그린위치 고등학교에서 열린 총영사 태권도컵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 (아래) 도복을 입은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오른쪽)가 격려를 한 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충북과학고 학생들이 직접 발명한 과학실험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

## 충북과학고, 한인 2세 학생들과 지혜와 우정 나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방문해 과학 실험자료 전시  
“한미 청소년 문화 교류 이어갈 것”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충북과학고등학교(홍석중 교감) 학생 60여명이 지난 5월 30일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 학부모회장 이현주)를 방문해 한인 2세 학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찾은 충북과학고 1학년 학생들은 물리학과 기하학을 바탕으로 직접 연구하고 발명한 여섯 가지 과학 실험 자료들을 학부모실에 전시했고 2세 한인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충북과학고 학생들은 한국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서 1일 보조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했으며 특별히 개최된 한국문화 청소년 홍보대사인 ‘아미’의 연례발표회에 함께 참석하는 등 ‘한국과 미주 지역 한인 2세 교류의 장’을 형성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

은 “처음 갖는 행사여서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행사 중간중간에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서로 지혜와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일 교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미 2세 교류의 장’이 지속적으로 열려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과 미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석중 충북과학고 교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연례적으로 한국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학생들과 미국의 한인 2세들간의 청소년 문화 교류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오는 13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졸업식 및 학예 발표회를 갖고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2015-2016학년도 가을학기 등 록은 6월 6일부터 시작된다. 가을 학기 등록 및 교사 신청은 전화 (508-523-5389) 또는 이메일 (ksneusa@verizon.net)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동양계 전체 인구 5%, 하버드 등 명문대에선 20%

▶▶1면에 이어서

쟁력은 이미 정평이 나왔다. 동양계는 최고소득층, 최고 교육층, 그리고 급격히 성장하는 그룹으로 최고 학부에서도 그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프린스턴에서는 21%가 아시안이며 하버드에서는 20%가 아시안이다. 그럼에도 아시안의 인구는 미국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양계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에 비해 훨씬 좋은 성적과 스펙을 갖춰야 한다. 2009년 프린스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7대 명문대의 경우 입학에 위한 SAT 점수는 동양계는 1460이었고 이에 반해 백인은 1320, 히스패닉은 1190, 흑인의 경우 1010이면 가능했다.

이처럼 인종을 바탕으로 쿼터를 적용해 SAT 만점에 GPA 만점인 동양계 학생들이 명문대학에서 입학할 거절당하는 사례를 두고 “뱀부 실링(죽의 천정)”이라고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동양계 단체들은 하버드와 명문대들을 상대로 동양계 쿼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유대인이 역사별 당했지만 이제는 동양계가 역사별 당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안 역사별 논란은 다양성과 특권을 두고 복잡한 토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다양성은 사회경제적 계급과 소수민족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양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인도계, 동북아시아계, 그리고 동남아시아계는 또 서로간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소송은 소송일 뿐 현재 입시를 눈앞에 둔 부모에게는 먼 이야기다. 일부 입시생을 둔 가족들은 입시에서 당하는 동양계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입학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도 한다. 제임스



야드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여한 조이 김과 그의 동생 제시카, 아버지 T.K. 어머니

### 동양 학생들 전형적인 특징들

- 공부를 잘한다. 약기를 다룬다.
- 거친 운동을 안한다.
- 부모의 이민사를 에세이로 쓴다.
- 장래 희망이 의사 또는 변호사다.

첸은 캘리포니아 알메다에 위치한 아시안 어드밴티지 칼리지 컨설팅을 20년 전에 설립해 아시안 역사별의 해법을 제시해오고 있다. 그의 고객은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도 있으며 심지어 보스톤에도 있다는 것이 보스톤글로벌의 보도다.

제임스 첸은 “입학 사정관들이 보기에는 동양계 학생들은 한결같다. 높은 시험점수, 좋은 학교 성적을 받고 대부분이 약기를 다루며 풋볼 등과 같은 거친 운동은 안한다”고 동양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꼬집었다.

첸은 고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약기를 바꾸거나 아시안들이 하지 않는 스포츠를 하도록 권한다. 또한 에세이에는 동양적인 내용 즉 단돈 \$2불을 가지고 보트에 타거나 헤엄쳐 미국으로 망명한 가족사의 이야기 등을 담지 않도록 권유한다.

첸의 뉴욕 고객 중의 한 학생은 전교생 절반이 아시안인 좋은 학교의 공립

학교에 다녔다. SAT 만점에 전교 1등, 반장, 배드민턴 팀의 캡틴으로 활약했다. 첸은 그녀에게 피아노 대신 뮤지컬을 공부하도록 했고 배드민턴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했다. 아시안들은 상당수가 이 같은 라켓 스포츠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학을 전공해 의사가 되겠다는 전형적인 동양계의 이야기 대신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 하도록 했다. 결국 그녀는 하버드의 조기 전형에 합격했다.

지난 목요일 하버드를 졸업한 조이 김(23, 시카고)의 경우 대입시 높은 SAT와 최고의 GPA를 받았으며 고교의 오케스트라의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다. 8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다. 그럼에도 하버드와 예일에서 모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교시절 연극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많은 드라마를 만들고 연설을 해야 했던 것이 대입에 결정적이었다.

반면 그의 동생 제시카 김의 경우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명문대에 지원했지만 그중 5개 학교에서만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하버드와 예일은 불합격이었다. 결국 유편을 선택한 그녀는 “동양계란 사실이 아프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에서 사살된 테러용의자, 경찰 참수 살해 계획

아마존에서 군용 칼 3개와 칼같이 구입

소재 가택에 연금돼 있다.

이번 기소장에는 라힘과 데이비드 라이트가 나눈 대화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라힘은 라이트에게 “좋은 도구”를 구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는 암호화된 용어로 매사추세츠 밖에서 누군가를 살해하고 또한 그 공격의 동기를 밝혔지만 누구를 목표로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2일 로슬린데일 CVS 앞에서 경찰에 총격에 의해 사망한 남성, 우사마 라힘은 로드 아일랜드의 제복을 입은 누군가의 목을 베어 살해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라힘은 최근 아마존에서 3개의 군용 칼과 하나의 칼 같이 구입했다. 그는 2일 군용 칼을 들고 접근하는 경찰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이를 내려놓기를 거부하다 경찰에게 총알 2발을 맞고 사망했다.

라힘의 조카 데이비드 라이트는 스마트폰을 부서버린 것에 대해 수사 방해죄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현재 그는 에버렛

라이트와 라힘은 이번 주 일요일 로드 아일랜드 해변에서 제 3자를 만나서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2일 새벽 라힘은 라이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비웠으며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무작위적으로 경찰을 죽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라힘이 사살된 후 몇 시간 후 에버렛 린든 스트리트 소재 자택에서 체포됐다. 라이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첼시에서 태어나 병커했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hsb@bostonkorea.com



테러관련 혐의로 2일 밤 체포된 데이비드 라이트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운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8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사라진 고가 미술품, 도서관서 발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공립 도서관의 고가 미술품 2점이 사라진지 약 두 달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황당하게도 기존에 보관되고 있던 곳에서 약 24미터 떨어진 보관실로 도서관 내부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8주간의 수사가 종결됐다. 사라진 작품을 발견한 사람은 로렌 쇼트 도서관리원이다.

에이미 라이언 보스톤 공립 도서관장은 "(두 작품의) 정리가 잘못 되어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잃어버린 보물이 집에서 발견되어 기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서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동을 빚은 램브란트의 초상화와 알브레히트 뒤러의 '아담과 이브'는 각각 3만 달러, 6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4월 8일 두 작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뒤러의 '아담과 이브'는 사실상 지난해 6월부터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라이언 도서관장은 월시 정부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라이언 보스톤 공립 도서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서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동을 빚은 램브란트의 초상화와 알브레히트 뒤러의 '아담과 이브'는 각각 3만 달러, 6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미술품을 발견한 로렌 쇼트 도서관리원(오른쪽)과 에이미 라이언 도서관장이 각각 램브란트의 자화상과 뒤러의 '아담과 이브'를 들고 있다

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3월 "보스톤 공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는 7월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라이언 보스톤 공립 도서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서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yoo9146@bostonkorea.com

# 그림 분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장 사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에이미 라이언 보스톤 공립 도서관장이 3일 사라진 미술품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했다.

라이언 관장은 성명서에서 "보스톤 공립 도서관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거친 후" 오는 7월 3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 이사회 제프리 루드만 이사장은 지난 4월 미술품이 분실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지금까지 줄곧 라이언 관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과 수석 비서관인 대니얼 고의 지속적인 사퇴압력을 받고 결국 사임하게 됐다.

3일 아침 대니얼 고 보스톤 시장 수석 보좌관은 "63만불에 달하는 예술품이 사라지고 거의 1년 동안 아무도 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보스톤 공립 도서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고 수석 보좌관은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이 실종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서관의 뮤직 큐레이터는 과거 작곡 원본의 몇 장이 사라졌다는 이메일을 라이언 관장에게 보냈고 이는 라이언의 임기 전에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타임 캡슐의 금화도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에이미 라이언 관장이 미술품 도난 사건과 관련 3일 오후 사임했다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해지자 라이언 관장은 3일 아침 결코 사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꿔 오후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지난해 \$193,000의 연봉을 받았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대학교에 4억 달러를 기부한 존 폴슨 회장

# 존 폴슨 회장 기부 "21세기 공학 리더 되길"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가 3일(현지시간) 대학 역사상 가장 많은 4억 달러(4천429억 원)의 기부를 받았다.

기부자는 '해지펀드의 제왕'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존 폴슨이라고 대학 측이 공식 발표했다. 폴슨 앤드컴퍼니 회장인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동문이다.

기부금이 간 곳은 하버드 공학 응용과학대학(SEAS,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이다.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에서 폴슨 회장이 공과대학을 중시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번 기부가) 하버드를 변화시키고, 그 너머 세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명을 앞으로 '하버드 존 폴슨 공학응용과학대학'으로 바꾸고 캠퍼스도 대학본부가 있는 매사추세츠 주(州) 케임브리지에서 인근 알스턴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하버드대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벌여온 '65억 달러 캠페인' 과정에서 이뤄졌다.

폴슨 회장은 "지난 379년 동안, 하버드대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류 전체를 이롭게 했다"면서 "오늘 기부가 SEAS를 21세기 공학의 리더로 이끌어 이런 유산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80년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1994년 200만 달러로 직원 1명을 데리고 해지펀드회사인 폴슨 앤드컴퍼니를 창업, 19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관리하는 125명 규모의 기업으로 키웠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버드대에 대한 최대 기부는 이 대학 출신 투자자 제럴드 찬 일가가 지난해 보건대학에 했던 3억5천만 달러(3천875억 원)이다.

이번 기부는 2억2천500만~3억5천만 달러 범위인 예일, 코넬, 존스홉킨스, 펜실베이니아 대학 등 미국 유명 대학의 최다 기부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quintet@yna.co.kr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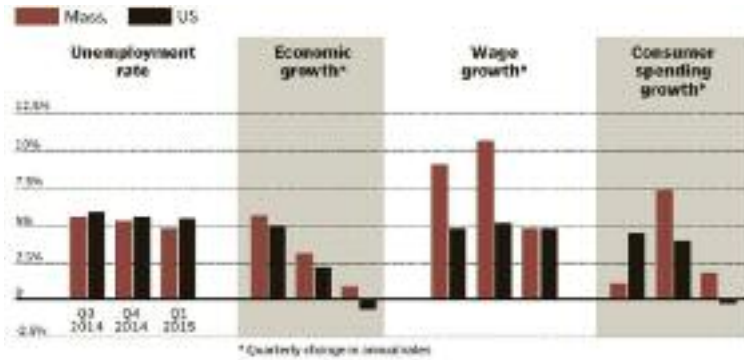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 경제, 폭설에도 1사분기에 1% 성장

전반적으로 미국 평균보다 경제 상황 좋아

MA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



매사추세츠는 실업률, 경제 성장, 임금 증가, 소비 지출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에서 미국 평균을 앞서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매사추세츠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경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는 고용 상황, 임금, 소비자 지출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미국 평균을 앞서고 있다.

올해 초 경제 상황이 좋았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매사추세츠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경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잉글랜드 경제 파트너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경제 상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젊은 층의 실업률과 비용 문제, 특히 에너지 비용과 주택 비용이 높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매사추세츠의 경제는 못

노래를 부르며 순항하고 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라며 "1월과 2월의 혹독한 날씨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과속방지턱 정도의 역할만 했다.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이미 2사분기에 다 극복이 되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의료 관련 분야다. 이들 산업은 수년째 매사추세츠에서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 산업에서 다시 채용이 늘고 있어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올해 1사분기 동안 1%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 같은 기간에 경제 규모가 2.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폭설을 뚫고 선전

한 셈이다. 미국 평균과 비교해도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 상황은 좋은 편이다. 미국 평균은 1사분기에 경제가 1% 둔화되었다.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소비자의 지출이 줄어들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1월과 2월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차단되고, 대중교통이 정지되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매사추세츠 경제가 성장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표현했다. 아울러 2사분기에는 6%, 3사분기에는 5.5%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며 매사추세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si@bostonkorea.com

순위	남자 이름	남자 연원	여자 이름	여자 연원
1	Benjamin	453	Emma	448
2	William	415	Olivia	443
3	Jacob	392	Isabella	389
4	Liam	374	Sophia	381
5	Michael	365	Ava	339
6	Mason	349	Charlotte	324
7	Alexander	346	Emily	279
8	James	346	Abigail	250
9	Noah	341	Grace	240
10	Daniel	336	Mia	240

2014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아기 이름 중 가장 인기 있는 이름

## MA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이름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작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벤자민(Benjamin)과 엠마(Emma)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시큐리티 온라인(Social Security Online)은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을 각 주 별로 정리하여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을 100개씩 순위를 매겨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아기의 성별과 출생지, 생일 등을 적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이름도 함께 적어내야 한다. 자연스럽게 연방 정부의 소셜 시큐리티 부서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다.

매사추세츠에서 남자 아기 이

름으로 가장 인기 있는 벤자민은 성경에 그 기원이 있는 이름이다. 벤자민은 야곱(Jacob)의 12 아들 중 막내이며 히브리어로 '남쪽의 아들', '늘어서 갖게 된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유명 인사로는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고, 영화 졸업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맡았던 역할의 이름이기도 하다.

작년에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엠마는 독일 고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완전한', '전체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대중화 되어 19세기부터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항암효과
- 감기예방
- 혈액순환 개선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동인비진 크림  
DONGINBI Red Ginseng Power Repair Cream / B01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Mix-it**  
SUSHI · NOODLE · GRILL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 보스톤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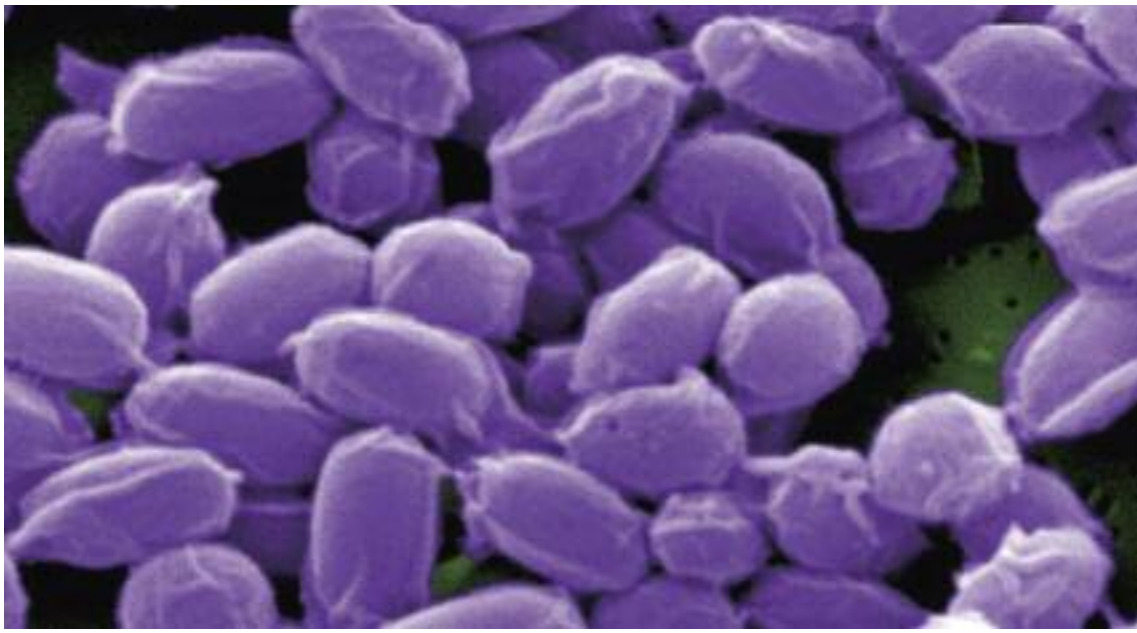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학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발행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할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테스트 업소에 당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발행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관광객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선택이 대한 계층은 꼭우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 미국방부 '탄저균, 한국·호주·캐나다 & 미 17개 주에 배달'

(워싱턴 로이터=뉴스1) 국중환 기자 = 미국 국방부는 3일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등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의 총 51개 연구소에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앞서 발표한 것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계속되면서 배달 지역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탄저균이 배달된 지역은 한국, 호주, 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2개 주라고 발표했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탄저균이 고의로 배달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번 탄저균 배달로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나 대중에게 전해진 위험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탄저균이 배달된 출처는 유타주 소재 더그웨이 군 연구소 한 곳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jhkuk@news1.kr

### 주류업소서 총기난사...한인 동포 점주 등 3명 사망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조지아 주의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주류업소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3명이 사망했다. 2일 현지언론 코브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조지아 주 코너이스 시에서 주류판매점 '매그닛 패키지 스토어'를 운영하던 차문혁(44)씨와 30대 손님이 한 백인 남성이 난사한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용의자는 제프리 스콧 피츠(36)로 그는 차씨와 언쟁

을 벌이고 가게를 떠난 뒤 총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차씨와 오토니카 에이컨스(39) 등 2명을 죽이고 달아났다. 피츠는 에베레셀 로드 선상의 자택으로 돌아가 그의 부모에게도 총기를 난사했고 뒤쫓아온 경찰과 대치하며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다. 피츠의 부모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츠에게 다른 전과는 없었으며 가게 직원들에 따르면 피츠는 가게를 자

주 드나든 단골손님이었으며 최근 절도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경찰은 피츠가 경찰의 총격에 맞아 사망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정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차씨 가게 인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토드 스콧은 사건 당시 손님으로 왔다가 권총을 가지고 돌아와 피츠에 맞서는 등 용감한 행동을 보여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yeoulim@news1.kr



### NYT, 유튜브 한국요리 강사 '망치' 집중 조명

"모든 것 정확하게 해야" 요리책에 젓갈·된장·막걸리 레시피 실어

가 깨알 같은 영어로 쓰였다. 그러나 미국인에게는 낯선 정어리젓갈, 막걸리, 멸치국물 만드는 법도 함께 실렸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NYT는 3일 음식면에서 최근 '망치의 진짜 한국음식'이라는 요리책을 낸 그가 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보다는 전통을 따르는 한국음식 레시피를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고기와 쌈장 조리법은 지면에 게재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을 집에서 담그는 법도 소개됐는데 된장에서는 발효를 위해 전기담요, 마른 벗짚, 향아리 등을 준비하라고 돼 있다.

NYT는 "집에서 만드는 된장을 완성하려면 거의 1년이 걸린다"면서 "대부분 요리사가 시판 제품을 사먹지만, 홈메이드 된장의 맛은 탁월하다"고 전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그는 할머니, 어머니 등 집안 어른으로부터 음식을 배웠다. 1992년 가족과 함께 미주리 주 켈럼비아로 이주했지만, 온라인 게임에 빠졌던 시절도 있었다.

NYT는 커다란 귀걸이에 짙은 분홍 립스틱, 가죽 반바지 같은 소녀같은 옷차림을 즐기는 그가 사실은 '철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무엇이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널명이자 닉네임인 '망치'는 이 시절 자신의 게임속 인물(아바타) 이름이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식당의 음식이 미국인의 취향에 맞춰 더 달고, 더 짜고, 양념과 젓갈을 덜 넣어 감칠맛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자랄 때의 입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리책을 쓰면서 편집자들에게 요구한 것도 줄곧 이것이었다. 305쪽에 달하는 요리책에는 밥, 김치, 국수, 부침개, 반찬, 잔치음식 등 한국 음식 120여 가지의 레시피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를 시작한 것은 2007년, 두 자녀의 권유에서였다.

그는 "영어로 쓰인 한국 요리법들이 오류 투성이어서, 우리가 해먹는 것처럼 제대로 된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금탑수상**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격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교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교가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 오바마, 애국법 대체한 '미국자유법' 서명... NSA 무차별 수집 금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2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통과된 지 몇 시간 만에 신속히 서명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에 따라 법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자유법'은 테러와 무관한 일반 시민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이 만료된 지 이틀만인 2일 상원을 통과했다.

법은 정부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 통신회사에 요청해야만 접근할 수 있고 정보기관이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통신기록 접근을 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서명했다

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NSA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뜻하는 '외로운 늑대'를 감시할 수 없게 됐으며 통신기기를 바꿔가며 활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 역시 금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 장치들을 완벽히 갖추 수 있도록 행정부도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chung@news1.kr

## 미 절반, 오바마 '비호감'...부시 전 대통령보다 인기 없어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보다 인기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3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2%인 반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9%로 더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01년 9·11테러와 아프가니

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8년간 다사다난한 미국을 이끌었던 부시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 중 아버지 부시(조지 H.W. 부시)와 빌 클린턴에 대한 호감도는 64%로 비교적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두 정치가문이 대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클린턴 전 장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압도적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형에 이어 대권을 노리는 부시 전 주지사는 출마 선언 시 공화당의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9~31일 102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됐으며 오차범위는 3% 수준이다.

yeoulim@news1.kr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 "케리 미국무 대퇴골 접합 수술 성공, 곧 퇴원"

(워싱턴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퇴골 골절 접합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의료진이 2일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데니스 버크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날 "수술과정은 단순했고 골절 부분의 접합도 잘 이뤄졌다"며 "3일부터 그를 걷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크는 "완전히 회복해 정상 상태로 돌아오으로써 퇴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일은 그의 국무장관 임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케리 장관이 수술을 받은 후 건강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이란 핵협상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이던 케리 장관은 인근 프랑스 시옹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오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다음 날인 1일 공군기를 통해 보스턴으로 귀국했다.

케리 장관은 외국에 나갈 때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자전거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핵협상 대표인 케리 장관이 다치자 일각에서는 오는 30일로 협상시한이 마감되는 이란 핵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곧 협상에 다시 참여할 것을 약속했으며 마감시한 전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indlove@news1.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휴일없는 미용실**  
Bliss Image

봄날의 싱그러움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손영권 치과**  
Young Dentistry, PC

좋은 치과  
좋은 치아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메르스 감염 서울 의사, 1천명 이상과 접촉

### 확진 판정 이틀동안 1565명 모인 재건축총회 등 참석 시, 상세한 동선 공개 "복지부로부터 정보 공유 못받아"

(경기=뉴스1) 차윤주, 정혜아 기자 = 서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가 시민 10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밤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A씨의 이동동선을 공개하고 향후 시의 메르스 관련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35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틀 동안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병원 심포지엄 등 행사에 수차례 참석, 공중과 접촉했다.

강남구 세곡동에 거주하는 A씨는 14번 확진 판정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병원 의사로 지난달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됐고 이튿날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심포지엄 참석했고, 오후 7시부터 30분 가량 양재동 L타워에서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 참석 직전인 오후 6시부터 한시간 동안 가족과 가든파이프 음식점 '두끼'에서 식사를 했다.

5월 31일부터 기침과 가래, 고열 증상에 시달린 A씨는 다시 오전 9시부터 한시간 동안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귀가했다가 오후 9시40분 한 병원에 격리됐고, 이튿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동안 1500명이 넘는 불특정 시민과 접촉한 것이다.

시는 의심증상 후 확진까지 A씨의 동선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5번 환자에 대해선 시

공무원이 전날 늦은 오후 보건복지부의 회의에 참석해 알게 됐다"며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 (중앙 정부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사실 공표 및 확인을 요청했지만 35번 환자에 대한 동선도 1565명의 명단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후 금일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1565명 참석자들에 대해 '수동 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오기도 했다. 수동 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전원의 리스트를 입수했다"고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5월 30일 열린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 전원에게 이날 연락을 취했고 자발적 자택격리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A씨가 근무한 해당 병원에 대해 접촉자 전부를 조사해 격리를



박원순 서울시장(4일 밤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인 서울의 한 의사가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1천 400명 규모의 재건축총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히며 "재건축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400여명에게 35번 환자가 총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알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스스로 자택에서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메르스 위험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일반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이동동선 지도를 빠른 시간내에 공개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 시간 이후부터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A씨의 동선과 관련된 시민들이 가

택격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르스 감염 여부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2133-0691~7)로 연락하면 검진을 지원한다.

시는 25개 보건소에 메르스 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해 감염에 대한 1차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정밀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chacha@news1.kr

## 박원순, 복지부 대처에 분통... "직접 진두지휘"

### 박원순 서울시장, "정직하게 알려 신뢰 얻어야" "정보 실시간 공유할 것"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4일 밤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보건당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대처를 높은 수위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난 1일 메르스 감염 확진을 받은 의사 A씨가 이틀 동안 시민 10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달 31일 격리돼 1일 35번째로 메르스 판정을 받은 A씨는 14번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병원 의사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병원 심포지엄 등 행사에 수차례 참석,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회의에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A씨의 감염여부를 인지했고, 즉시 동선 등 추가 정보를 요청했지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8시에나 관련 정보를 받았다. 현재 메르스 확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 등 대응은 보건복지부 지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35명의 환자가 밝혀질 때까지 중앙정부에서 조사

를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를 관리하거나 격리했다"며 "A씨의 경우 시 공무원이 회의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 전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촉이 됐는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3일 보건당국에) 환자의 전체 동선과 행사 참석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답을 못 받았다"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됐고 관계공무원도 정확한 정보가 없고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1565명의 명단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고 정보공유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1565명 참석자들에 대해 '수동 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오기도 했다"며 "수동 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가) 전원의 리스트를 입수했다. 이후 금일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는 A씨가 갔던 5월30일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 전원에게 이날 연락을 취했고 자발적 자택격리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이틀 동안 참석한 병원 심포지엄 참석자 명단도 추적 중이다.

박 시장은 "메르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고 있고, 서울시는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협조를 해왔다"며 "35번 환자의 동선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엄중한 상

황이 되기 때문에 (대응수위를) 주의해서 경보로, 한 단계 올려야 해 정보 공유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지 못했고 조치도 미온적이었다"고 거듭 보건당국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그는 A씨의 모든 동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활동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직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며 "35번 환자의 모든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그 동선에 있었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전염이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환자 동선 등 정보 공개가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활동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뢰를 얻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며 "35번 환자의 모든 동선을 공개해 그 동선에 있었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전염이나 확산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이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이 시간 이후부터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상황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chacha@news1.kr

## 군 메르스 감염 의심으로 장병 80여명 격리조치

### 공군 오산기지 A원사 접촉 6명 "감염 의심 증상 없다"

### 오산기지 예비군 훈련 잠정 연기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군에서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병원이나 자택에서 격리중인 인원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내에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어 격리된 인원이 91명이라며 이 가운데 민간인을 제외하면 80여명의 장병이 격리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격리조치된 인원은 4일 현재까지 23명으로, 국군대전병원 10명 국군수도병원 13명이다.

국군대전병원 인원 가운데 6명은 전날 메르스 감염 1차 양성판정을 받은 오산공군기지 소속 A원사와 직접 접촉했던 장병들이다.

A원사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이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달 14~27일 경기도의 모병원에 입원했었

다. A원사는 이 병원의 7층 병실에 있었으며, 이 기간 메르스 감염 환자가 8층 병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6명의 공군 장병들은 A원사를 병문안했다.

당국자는 "이들 6명의 장병이 병문안을 갔다가 부대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격리시킨 것"이라며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A원사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병 68명도 별도로 격리된 상태다.

이들 중 간부 41명은 자택에서, 병사 27명은 생활관에 각각 격리조치됐고, 현재까지 별다른 감염 의심 증상은 없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A원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인원을 제외하 다른 인원들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격리됐다.

A원사의 최종 감염 여부는 이날 자정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당국은 오는 8~10일 오산기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비군 199명에 대한 동원훈련을 잠정 연기했다.

bin1981@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http://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http://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mailto: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타  
 트리트먼트

디지털 펌  
 매직 펌  
 케라틴  
 레귤러 펌  
 하이라이트  
 헤어컷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당정청 회의 거부에 여 "노코멘트"

당·청 충돌 확산 경계

(서울=뉴스1) 김유대, 박소영 기자 = 새누리당은 3일 청와대가 메르스 확산 관련 당·정·청 회의 소집 제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 충돌 양상이 전면전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당의 제안을 거부한 만큼 신중한 행보를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변인 등은 현정택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이 "당정청을 지금 여는 건 국민적 수습에 있어서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일단 "노코멘트"라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여야 원내수석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청와대로부터) '당장 당·정·청을 하더라도 장관이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구성된 (당) 대책특위 같은 데서 안이나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해주면 언제든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메르스 확산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들었다고 전달하더라"고만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당청간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원 정책위의장은 저에게 '그냥 좋게 해석한다'고 그러더라"고 말을 돌렸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당정청 회의 소집을 거부한 청와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메르스 사태를 두고 청와대가 당·청 충돌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국정 의 우선 순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청와대가 앞장서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의원 역시 "청와대가 도대체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총단합해야 할 국가적 재난 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여도 시원찮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 국회안전특위, 메르스 경보단계 격상 촉구

안전특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현장점검...전병헌 "정부 대응은 무사안일 수준"

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단계만을 따지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공포지수는 '심각' 수준인데 청와대와 정부 등 관계당국의 대응은 '무사안일'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새민연 의원)는 4일 국민안전처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대응 실태 점검에 나서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감염 정보 공개와 경보수준 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노웅래 새민연 의원은 "사스(SARS)가 유행할 당시에는 정부가 총리실을 중심으로 초기대응을 잘했다"면서 "메르스는 사스보다 치사율도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전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메르스 감염사태 관련 비상상황관리반 운영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마련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와 관련된 과담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특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금 실제 상황에 비해 정부가 경보수준 단계를 너무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전병헌 위원장과 김태원·노웅래 여야 간사 등 안전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이성호 차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전 위원장은 "지금 메르스 감염 사태는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인만

ptj@news1.kr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NE 5TH - JUNE 11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이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THE FRESHEST SEAFOOD SALE

Experience the FRESHEST SELECTION of QUALITY SEAFOOD

아침에 도착하는 싱싱한 수산물을 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 NORWEGIAN SALMON STEAK**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 \$5.99/lb. (FRI/SAT/SUN ONLY 5/6/7 ONLY)
- GROUPEE** (그루퍼) \$4.99/lb. (FRI/SAT/SUN ONLY 5/6/7 ONLY)
- YELLOWTAIL** (냉동 방어) \$1.99/lb. (FROZEN)
- SEA SCURT** (냉동 오만둥이) \$3.49/lb. (FROZEN)
- YELLOW CROAKER** (냉동 참조기) \$3.99/lb. (FROZEN)
-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7.99/lb. (FRI/SAT/SUN ONLY 5/6/7 ONLY)
- HALF-SHELLED MUSSELS** (냉동 반갠 홍합) \$7.99/2 lbs./box (FROZEN)
- HAIOREUM DRIED WILD SQUID** (해오름 건오징어) \$10.99/15.8oz. (MON-THU ONLY 8/9/10/11 ONLY)

## TURN UP THE HEAT!

NOW DUMPLINGS GET SPICIER THAN EVER.

짜글짜글 맛있는 해오름 불닭만두!

##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한국에서 맛보던 그맛! 한국산 하림 삼계탕을 이제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It's Korea's version of chicken soup, but now it's easier than ever to cook. All the ingredients are pre-packed and ready to eat. Just simmer and serve.

<b>Watermelon</b> 수박 36ct/ea. \$6.99	<b>Ataulfo Mango</b> 아탈포 망고 박스 \$10.99 (FRI/SAT/SUN ONLY 5/6/7 ONLY)	<b>Fuji Apple</b> 후지 사과 \$0.99/lb. (FRI/SAT/SUN ONLY 5/6/7 ONLY)	<b>Korean Melon</b> 참외 박스 \$17.99 (FRI/SAT/SUN ONLY 5/6/7 ONLY)	<b>Scallion</b> 파 \$3.1/bun./for (FRI/SAT/SUN ONLY 5/6/7 ONLY)	<b>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b>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lb. (FROZEN)
<b>Thinly Sliced Beef Brisket</b> 냉동 차돌박이 \$9.99/lb. (U.S.D.A. CHOICE)	<b>Beef Top Blade Steak</b>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6.99/lb. (U.S.D.A. CHOICE)	<b>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b> 불고기용 냉동 돼지목살 \$5.99/lb. (FROZEN)	<b>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b> 양념 발진 등심 스테이크 \$6.99/lb.	<b>HAIOREUM Cooked White Rice</b> 해오름 순밥 \$12.99/7.4oz. x 12ea./box	<b>CHUNG JUNGONE Red Pepper Paste</b> 청정원 칠고추장 \$12.99/6.6 lbs.
<b>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b> 하루하루 마이 쌀 \$9.99/15 lbs. (MON-THU ONLY 8/9/10/11 ONLY)	<b>BADAAECHAN 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b> 수험 전장 김 선물세트 \$8.99/0.7oz. x 10ea./box (MON-THU ONLY 8/9/10/11 ONLY)	<b>HAITAI Nougat Ice Bar</b> 해태 누가바 \$3.99/2.36fl.oz. x 8ea./box (MON-THU ONLY 8/9/10/11 ONLY)	<b>THREE CRABS Fish Sauce</b> 삼계 피쉬소스 \$3.99/24fl.oz. (THE ESSENTIAL SAUCE THAT IS VERY POPULAR AMONG CHEFS)	<b>OSAKI BRAND Fish Cake</b> 오사끼 게맛살 \$5.99/1.1 lbs.	<b>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b> 하림 즉석 삼계탕 \$9.99/28.21oz.
<b>VITA SOY Soy/Tea/Juice Drink</b> 비타소이 소이/티/주스 드링크 \$2.5/pkg./for (All Varieties/8.45fl.oz. x 6ea./pkg.)	<b>POPCORNER'S Popped Corn Chips</b> 팝코너스 칩 \$0.99/All Flavors/5oz.	<b>NATURAL GARDEN Organic Pomegranate Juice</b> 네추럴 가든 유기농 석류주스 \$3.99/33.8fl.oz. (BEST SOURCES OF ESTROGEN FOR FEMALES OF ALL AGES)	<b>Straw Floor Mat</b> 피크닉 돛자리 \$4.99/150cm x 180cm/ea.	<b>SHINIL Electric Power Mixer</b> 신일 만능 전기 믹서기 \$39.99/SMX-WK1500/1.5L - ea.	<b>CYCLEAN Hand Spin Cleaner</b> 싸이크린 핸드 스피ن 청소기 \$39.99/ea.

# 화합 외친 새정치 워크숍...1박2일 토론으로 역부족 확인

계파갈등 양극 여전  
박지원·전순옥 토론 방식  
불만 '보여주기 쇼'

비노 김한길·안철수 불참  
치열한 토론도 부족

(양평=뉴스1) 박상희, 서미선, 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계파 갈등에 따른 당 내분을 잠재우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의원 워크숍을 3일 마무리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원탁토론과 6월 임시국회 운영전략회의 등 다양한 토론의 장을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단결력을 높이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당내 최대 고질병인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등 여전히 양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도 감지됐다.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과 이 때문에 최고위원직까지 사퇴한 주승용 의원이 화해하

며 일부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이틀 동안 이어진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는 이날 진행된 원탁토론이었다.

다만 이날 원탁토론은 제한 시간이 정해진 조별 토론과 패널 토론으로 치러지면서 당초 예상됐던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격렬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노 진영의 대표 주자인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형식의 토론을 왜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끝장 토론을 했어야 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원탁토론이 끝나고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성해야지 아무런 성과도 없고 지금 이 시기에 여기까지 와서 무엇을 하는거냐"면서 토론시간이 부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워크숍이 종료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파를 어떻게 청산하고 집권의 길로 갈수 있느냐를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때 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자성하고 비판도 하면서 모든 것을 털어 하나되는 길로 가야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가나안농학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계파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전순옥 의원이 "의원들이 말도 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느냐"면서 "자유발언 시간도 마련하지 않고,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당의 중진인 박병석 의원이 중재를 시도했고 결국 추후 충분한 자유토론의 시간이 보장되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갈 때는 하나로 일치가 되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목표였는데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음번에 계속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토론에서는 당의 계파갈등과 정체성, 혁신안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의견이 개진됐다.

당 정체성과 관련해 진보적 어젠다를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쪽과 외연확대에 도움이 안된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신

뢰가 없어 생기는 문제로 신뢰회복을 위해 당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당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공천과 관련해서는 형식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당의 홍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anghwi@news1.kr

## 김상곤, '정체성, 리더십, 당권재민, 투쟁성' 4대 혁신과제 제시

하인리히 법칙 인용,  
"수많은 경고 누적  
새정치 이런 상황 생각해야"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2일 당을 살리기 위한 혁신과제로 당 정체성 재확립 등 4가지를 제시하며 당 혁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 참석,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해서 모든 에너지를 혁신에,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 혁신 과제로 △당 정체성 재확립 △리더십 정립 △당권재민 △투쟁성 회복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역사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개선해왔지만 이 시점 이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리더십을 바로세우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리더십을 수립해야 하는지 정책적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당권재민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당이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면 내부 소통 체계가 어떻게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면서 "또 야당다운 수권정당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열린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위해 야당의 투쟁성 회복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산업재해 관련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을 인용,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상황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대형사고가 일어나려면 29개의 소형사고, 300명이 가볍게 다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조직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까지는 이러한 경고가 누적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인리히 법칙과 우산지목(牛山之木·벌거숭이 우산이 원래 아름답다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 김상곤, 총선 불출마 선언, '당권재민 혁신위' 명명

혁신위 외부 6명-내부 4명 등 총 11명

(서울=뉴스1) 김현, 박소영 기자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1일 "저는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권재민(黨權在民)! 모두가 함께 만드는 혁신'이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희생 없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저부터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엄중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새정치연합을 구하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혁신이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당무위원, 중앙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당 혁신에 대한 동참 의사를 물은 뒤 "모두가 다 그러겠노라고 말씀하리라 생각한다. 여러분 모두를 믿는다"며 "그렇다면 해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분열에서 통합의 길로 나아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

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당헌 총칙 제3조2항을 거론, "여기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의 첫 번째 길을 선언한다. 당권재민! 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혁신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위를 '당권재민 혁신위'로 명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인선과 관련, "새정치연합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인 것이기 때문에 혁신은 우리 손으로 이뤄야 하지만 우리만으로 할 수도 없다"며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혁신위를 꾸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혁신위원 10명은 외부 인사 6명과 국회의원·기초단체장·원의 지역위원장·당직자 각 1명 등 총 4명의 내부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혁신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당혁신 없이 공천혁신도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혁신위는 먼저 정당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공천혁신, 정치혁신을 이룰 것"이라며 "정당혁신, 공천혁신, 정치혁신을 위해선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혁신을 성공시켜 국민과 당원의 새정치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유승민 엄호 나선 비박 중진...여 친박과 정면 충돌

비박 이재오 · 정병국, 청 · 최고위원 향해 직격탄 "정신 있나, 부끄럽다"

김태호 · 이인제 · 이정현 재반박

(서울=뉴스1) 김유대, 유기림 기자 = 비박(非박근혜)계 중진인 이재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휩싸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 양상을 촉발한 청와대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메르스는 뒷전에 놓고 당청 간 내분이나 일으키는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가"라며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며 "이러고도 이 정부가 탄 말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이라며 "비판할 것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열든가 아니면 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원내대표를 격려해줘야 한다"고 유승민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온 일부 최고위원들을 질타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다 모아도 부족할 시점에 당청 간 갈등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더 가속화시키는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최고위원을 겨냥해 "여당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지 왜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인지 되묻고 싶다"며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책임공방을 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놓고 최고위원회 의와 의원총회를 몇 차례나 열었나"라며 "87%가 찬성해 통과시킨 법인데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해야지 '나는 반대했으니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전날 친박계가 주도하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이재오 의원이 굳은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세미나를 연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법제처장이 민감한 시기에 나와 그런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결국은 계파 갈등을 부추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비박계 중진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던 김태호 · 이인제 · 이정현 최고위원 등도 회의에서 재반박에 나섰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며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정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진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괴물법이 탄생했다"고 여야 협상 과정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사태의 본질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다 아니라는 문제가 아니라 당청 관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우린 잘 몰랐다"며 "연금개혁안이 안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뜻이 전달됐다면 공무원연금 처리를 미루더라도 전략적인 조율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그 전에는 몰랐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헌법의 근본을 흔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든 문제에 대해 만약에 잘 몰라서 처리했다면 더 논의를 하더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ydkim@news1.kr

## 정의화 "국회법, 대통령 편안히 판단하시도록 이송 늦춰"

11일째 국회법 정부 이송할 듯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다녀와서 편안하게 판단하시라고 법안 정부 이송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주제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정부가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9일과 23일에 있더라"며 "(정부 의결을) 9일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너무 촉박하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14일에 떠나서 19일에 귀국하시기 때문에 돌아오시고 난 뒤에 편안하게 판단하시라고 국회법의 정부 이송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준비가 많기 때문에 바쁘실 것"이라며 "(법안 이송이)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대통령의 판단이) 바뀌진 않겠지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법안 이송 지연의) 주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당초 5일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정국을 휩쓸면서 다소 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11일째 법안을 정부에 이송해 박 대통령이 귀국(19일) 이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는 데 있어서 특정 시한이 법에 명시돼있지는 않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송에 1~2주 걸린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두고 일고 있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이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의장은 말을 아끼는 게 좋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 의장은 현역의원 신분의 대통령 정부특보(새누리당 김재원 · 윤상현)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2일)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법 논란으로) 시끄러워서 발표를 미뤘다"며 "다음주 월요일(8일)에 발표하겠다. 결론은 내려져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서울대 학생들은 선택



정의화 국회의장

을 받은 분들"이라며 "여러분은 졸업해서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명을 타고났다.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꿈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월호 참사 등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라고 진단하면서 "공동체 정신, 이타 정신 등을 바로 새겨 물질주의와 정신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은 가지되 좌절하지 말라",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다", "부모님께 잘해야한다" 등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철학을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저는 늘 야당 편 51%, 여당 편 49%를 든다"며 "여야 모두에서 불평을 듣더라도 대의 민주주의와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

## 야 "박대통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발의 해명해야"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최근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에는 당연한 일 이었던 게 이번에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는지, 당시에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의원 33명과 공동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위법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같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해명이나 유감 표명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천하의 악법인 것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가간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발의가 아니라 서명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간 게 98년이다"며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ptj@news1.kr



**Seoul Seolleongtang**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http://www.prospectdental.com)

Central Sq. Red Line  
To MIT  
To Harvard Sq.  
Mass Ave  
Starbucks  
Prospect Dental Group  
Koreana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야, 황교안 선임계 누락 · 위증 · 병역 의혹 추가 제기

홍종학 "선임계 누락 추가 2건 확인...김광진 "면제판정 받은 후 질병 판정"

장관 인사청문회 시절 위증 의혹도...미공개 수임내역 19건 자료제출 압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야당이 4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추가 사례와 병역기피 의혹까지 추가하며 황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야당은 황 후보자의 관련 자료제출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질타하며 미공개 수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결을 통해 강제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임계 미제출 2건 수임 추가 제기  
인청특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2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회가 제출한 수임자료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밝힌 국가보안법 사건 2개에서 대리인 명단에 황 후보자가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황 후보자가 수임했다는 판결문을 확인 중인데 그중 3건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한 건은 이미 밝혀진 모정수 기 업체 회장 건이고 나머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인데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직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이 정도가 밝혀졌다"면서 "(황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 중 이런 사건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본인 스스로 빨리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이미 청호나이스 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은 통상적으로 '전화변론'으로 불리며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청호나이스 그룹건의 경우 당시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던 사건이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이 김용덕 대법관이었는데 김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이며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기도 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판정전에

이미 면제?...병역 의혹

인청특위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중'(현재 5급)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에게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병적기록표에는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 10일 수통정밀(NO.000) 결과에 의거 신규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급규칙' 제11조(특수사유의 기재) 제1항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결과 체격등위가 갑중(현재 현역)이 아닌 자에 대해 그 체격등위의 판정사유가 되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 정도를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왼쪽 위에 △의 부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즉, △부호가 있는 비고란은 판정사유를 기재하는 란인데 병역면제 판정이 이미 내려진 후 6일이 지나서 판정사유가 기재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나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액수임료와 병역면제, 역사편향 등 황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서 위증 논란

황 후보자는 장관 후보 시절 변호사로 재직하며 사건을 수임한 건수는 총 10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조윤리협회가 제출한 수임내역에 따르면 수임건수는 119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 선임계 누락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증 의혹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홍 의원은 "당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장이 인사청문회 때 '수임계는 제출이 됐는지?'라고 묻자 황 후보자는 '선임계는 다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면서 "박 위원장이 재차 '101건에 대해 다 제출했나'라고 묻자 황 후보자는 '네 그렇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3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해명을 못한다면 명백한 위증"이라며 "당시에도 전관예우라는 중요한 검증이 이

뤄지고 있었는데 위증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 자격까지도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은 법조윤리위원회가 밝힌 119건의 수임내역 중 미공개한 19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위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자료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19건은 수임자료가 아닌 황 후보자의 업무활동 내역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황 후보자가 대한변협에 직접 수임한 내역이라고 신고한 내용인 만큼 법조윤리위원회가 임의로 미공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15일까지도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인사청문회법 제13조(검증)를 특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anghwi@news1.kr

## 황교안 미공개 수임내역 19건 청문회 최대 쟁점 부상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듯하다.

미공개 수임 내역은 이른바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의심을 낳고 있어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야당도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법조윤리협회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19건을 수임했다.

그러나 119건 중 19건은 삭제돼 공란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이 삭제된 19건의 수임내역이 전관예우 사례 중 하나인 전화변론 등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이미 전화변론 등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황 후보자의 인청특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는 청호나이스

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수임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19건도 청호나이스 그룹 것처럼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야당에 따르면 법조윤리협회가 19건의 수임내역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정식 재판을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수임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법조윤리협회가 정식 재판을 맡은 것이 아니라 상담 또는 자문 내역이라 밝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 사례 의혹은 더 짙어진다. 상담 혹은 자문만했다면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약 그룹에도 수임료를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호나이스 그룹건도 애초에는 법

조윤리협회가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사례로 지적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청호나이스 그룹건도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 등이 없었다"면서 "다른 건 다 지워지고 피의자 이름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때문에 청호나이스 그룹건 입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밝혀지지 않은 수임내역 19건도 청호나이스 건과 비슷한 사례라면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채 전화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변론활동을 못하도록 한 변호사윤리장전 제 20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 서울 광화문 알몸 여성 축산업 반대시위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클럽 아우디너가 축산업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아우디너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환경오염의 주범 축산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상의를 노출한 채 광화문 광장 한 가운데서 시위를 벌이던 아우디너가 경찰에 제지를

당하는 모습이 차례로 담겨있다.

아우디너는 지난달 28일에도 신촌에서 '공장식 축산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아우디너는 상추로 가슴만 겨우 가린 모습으로 '고기보다 내가 더 맛있다'는 피켓을 든채 시위를 벌였다.

한편 클럽 아우디너는 수임차 아우디너를 파는 딜러로 알려져 네 티즌 사이에서 이 같은 별명으로 불렸다. lee1220@news1.kr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샵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 보스톤 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됨. (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교, 잘 관리 된집, Green line D 근처,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처,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 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교 보기도문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교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Korean) 4:30pm(Korean)  
 Weekday Tuesday 10:30am(Korean), Thursday 7:30pm(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2015년 9월7일까지  
 2015년 9월20일-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 러니마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안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NewHampshir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견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샐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6월 15일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

# NBA 파이널 2015: 캐벌리어스 vs. 워리어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4-15 NBA 시즌이 시작할 때 30개 팀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새 시즌을 맞이했지만, 이제 남은 팀은 단 2팀 뿐이다. NBA 파이널에서 래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를 차지하는 팀이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노리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일지, 아니면 40년 만에 우승을 넘보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일지, 올시즌 NBA의 마지막 무대가 4일부터 시작한다.

워리어스는 올해 최고의 정규시즌을 보였다. 워리어스는 NBA 역사상 10번째로 한 시즌에 67승 이상을 달성했다. 워리어스 이전에 67승 이상을 달성했던 9팀 중에서 7팀이 NBA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캐벌리어스의 연고지인 클리블랜드는 NBA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저 스포츠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우승한 적이 없다. 킹 제임스라 불리며 현역 선수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을지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제임스는 올해를 포함해 5시즌 연속으로 소속팀을 파이널까지 이끌었으며 2번의 파이널 우승 경험이 있다.

캐벌리어스는 주전 선수가 2명이나 부상을 당해 전력 누수가 심각하다. 카이리 어빙은 플레이오프 경기에는 출전하고 있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 정

상 컨디션이 아니다. 케빈 러브는 어깨 수술로 아예 포스트 시즌 출전이 불가능하다.

캐벌리어스가, 혹은 제임스가 대단한 점은 주전들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해법을 찾아내고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플레이오프에 들어서 자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오히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면에서 향상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어빙과 러브의 부상으로 캐벌리어스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 팀이었다. 아무리 서고동저가 심해 동부 컨퍼런스의 전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캐벌리어스가 파이널에 진출한 것은 높게 평가 받을 일이다.

워리어스는 정규 시즌 내내 보여줬던 강력함에 비하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는 경기 내용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정규 시즌의 워리어스보다 포스트 시즌의 워리어스가 근소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워리어스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느려졌다는 점이다. 정규 시즌에 48분 동안 평균 100.7번의 공격 기회를 가졌던 워리어스는 포스트 시즌 들어 96.6번의 공격 기회를 갖고 있다.



소속팀을 5회 연속 NBA 파이널에 진출시킨 킹 제임스는 자타공인 최고의 에이스다

워리어스가 플레이오프 들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캐벌리어스 보다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워리어스는 스타플레이어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포지션별로 주전 외에 벤치 선수들도 충분

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캐벌리어스는 제임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보유하고 있는 선수층도 얇다.

에이스는 팀이 어려울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다. 캐벌리어스는 제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이 있지만, 동시에 제임스가 있는 한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워리어스는 전체적으로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을 하고 있고 큰 약점이 없다. 캐벌리어스는 제임스라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NBA 파이널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고의 팀들이 격돌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jsi@bostonkorea.com

## 보스톤 한인야구리그 7라운드 경기 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30일 열린 보스톤 한인야구리그의 제7라운드 경기에서는 꾸준히 승률을 올리고 있는 뉴잉글랜드 에이스와 오랜만에 승리를 따낸 매스 워리어스의 경기가 돋보였다.

체스트넛힐 소재 캐시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이날 7라운드 매치는 오전의 뉴잉글랜드 에이스(New England Ace)와 올스톤 슬래머스(Allston Slammers), 오후의 캠브리지 바나나스(Cambridge Bananas)와 매스 워리어스(Mass Warriors)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제1경기는 난타전에서 AS를 완벽히 제압한 NEA가 26:13으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갔다.

NEA의 선발 투수 김종형 선수는 3이닝 동안 3홈런 6실점을 허용했으며 이경윤 선수 또한 1.2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해 지난 경기와 같이 효과적으로 상대 타선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NEA는 타선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반 2회까지 AS의 선발 김민수 선수에게 완벽히 틀어막힌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등판한 투수들을 만나하며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는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풀 추 선수가 홈런과 3루타 포함 4타수 2안타 3볼넷 3득점 7타점으로 홀로 10점을 뽑아내며 돋보이는 활약을 하였다.

AS의 타선도 부진하였으나 등판한 투수들이 상대 타선을 제압하지 못하고 수비에서도 에러를 하는 등 승리를 이끌 수 없는 모습으로 대패하였다.

(승: 김종현, 패: 권영대)

오후에 펼쳐진 2경기는 투타에서의 완벽한 모습으로 MW가 CB를 19:4로 7회 콜드게임 대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MW에서 등판한 투수는 총 2명이지만 7이닝을 단 4실점으로 CB의 타선을 완벽히 제압해 야구



30일 오후 경기에서 승리한 매스 워리어스(Mass Warriors) 팀

가 왜 투수놀음인지를 보여주는 경기를 이끌어냈다. 특히 선발 황철중 선수는 5이닝 6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팀내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이날의 수훈선수로 선발되었다.

타선에서는 MW의 타자들이 매

일닝 득점에 성공하며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다. 특히 김봉의 선수가 2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3득점 4타점으로 맹활약하였고 5명의 선수가 3도루 이상을 기록하며 발야구의 강점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이날 CB의 투수력과 타선 모두 MW에게 제압당하며 손쉽게 승리를 내주었다. 다음 주는 AS와 CB 그리고 BB와 NEA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승: 황철중, 패: 박장훈)

bostonkorean@hotmail.com



# NOW HIRING

## Executive Assistant

- Requires Korean fluency skills-Burlington, MA  
LoopPay, Inc. is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Samsung Electronics, Co., Ltd

- Provide administrative, clerical support and personal assistance for Executives.
- Maintain the Executive's itinerary and schedule, and provide communications screening and services.
- Plan, arrange, schedule, and coordin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ecutive leadership, company and community meetings, travel, accommodations, appointments, meeting materials, and facilities.
- Prepare presentations, correspondence, and handle telephone inquiries, filing, and copying.
- Prepare executive personnel transaction documents, ensure access to company benefit and communications materials, and function as source to the executive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rms, policies, procedures, and records.
- Have skillful knowledge on MS Office softwares including PowerPoint, Excel and Word.

Applicants should apply at  
<https://looppay.theresumator.com/apply/xMZ0AU/Executive-Administrative-Assistant.html>  
or by sending their resume to [humanresources@looppay.com](mailto:humanresources@looppay.com)

Equal Opportunity Employer



# MATH GAME HOUSE

##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2 – 7/31  
Courses, SAT, Problem Solving  
가을학기 시작 9/8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http://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mailto:mathgamehouse@mac.com)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트북, 넷북, MP3플레이어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용랜턴 가능
- 탈착식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 LED디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이어폰단자 채용 (스테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우퍼채용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트로트
- 성경 찬양라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택일)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마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460 sf.  
Private Wooded Back Yard  
완벽한 집,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99,900  
Sharon, MA  
2 Beds, 3.5 Baths, 1969 sf.  
Custom Built, Water Pool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7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1352sf.  
New metal roof 2012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229,000  
Chelmsford, MA  
3 Beds, 2.5 Baths, 1071 sf.  
많이 업그레이드 된 타운홈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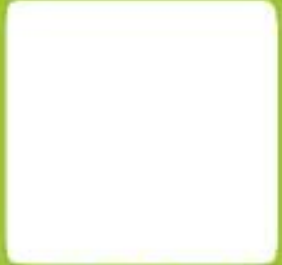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b>Restaurant</b>  \$547,9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Bedford, MA</b>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b> S.J Park 617-304-7001	<b>병원건물</b>  \$890,000 <b>Worcester, MA</b>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Sushi Bar</b>  \$90,000 <b>Newton, MA</b>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120,000 Boston, MA Beer & 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b>Beauty Service</b>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3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혼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론,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스론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23 June 5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매콤한 중국식 간식집

## 마라(Mala)

업소탐방 290

마라(Mala)

129 Brighton Avenue, Allston, MA 02134  
617-254-1839

Welcome, **7HD**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한는 한국 방송 언한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급업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6월 30일까지 2년 약정시  
이후 가입시 6월 시청료 무료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중국식 꼬치 바베큐와 알싸한 마라 향신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이 지난달 25일 올스턴 하버드 애비뉴에 들어섰다.

마라(Mala)는 영업을 개시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매콤한 야식을 찾는 손님으로 북적이며 중국인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어릴 때 중국에서 맛보던 꼬치를 잊을 수가 없다”는 티파니 판다(Tiffany Panda) 사장은 “이전에는 중국식 꼬치 바베큐를 먹기 위해 뉴욕까지 가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보스톤에 중국식 꼬치집이 생겼다는 건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식 요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이 될 듯하다”는 말을 더했다.

꼬치 메뉴는 \$1.50부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고도 삼겹살, 닭발, 개구리 등의 다양한 고기 메뉴가 있다. 이외에도 메추리알, 어묵을 포함한 각종 야채 및 해산물 메뉴가 풍성하다.

그릴에 구워져 나오는 꼬치 바베큐는 간간한 양념이 베어져 있으며 맵지는 않다. 주방에서 맵기를 일일이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매운 맛을 선호하는

사람은 테이블 위에 따로 마련된 매콤한 시즈닝을 곁들여 먹으면 될 듯하다.

여러가지 종류의 꼬치를 주문하면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며 다양한 식감의 바베큐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꼬치의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위해서는 다른 식사 메뉴를 곁들이는 것도 좋겠다.

마라 팻(Mala Pot)과 마라 스파이시 팻(Mala Spicy Pot)은 국물과 볶음 요리로 마라의 대표적인 메뉴이기도 하다.

마라 팻은 매콤한 국물요리로 야채(\$5.50), 소고기나 양고기(\$8.50), 해산물(\$8.5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마라 스파이시 팻은 볶음요리로 직접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중국식 식사메뉴가 풍성하다. 판다 사장이 추천한 치킨 스투(Chicken Stew)와 스쿼럴 피쉬(Squirrel Fish) 요리가 차례로 테이블에 올라왔다.

치킨 스투는 당면 대신 쌀국수를 사용한 중국식 찜닭 요리로 부드러운 닭볶음과 짭조름한 양념이 잘 어울린다. 스쿼럴 피쉬는 탕수육 소스와 비슷한 달콤한 소스에 튀겨낸 생선요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음식을 좋아해줘서 기분

이 좋다”는 판다 사장은 “주말에는 마감 30분전까지도 손님들이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마라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만 늦은 시각까지 야식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주말만이라도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배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열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협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BI한인경제연합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50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17-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젤교회	978-274-2369
엘프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프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9-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보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중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3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블고	
문수사	781-224-0670
서문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치료사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 보석

국제보석사	617-523-2553
미래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 보험

미분향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우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 생선가게

매더랜드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찬피시마켓	781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네틱(Natick)에 있는 세탁소에서 프레스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655-5004

린(Lynn)에 있는 세탁소, 셔츠프레스서 구함 (오후 3시 이후에도 가능하신 분)  
T. 617-840-183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de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Clients list included, Asked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N [그로서리 매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 [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 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N [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물 진입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N [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 [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N [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 [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 [매매]**  
치킨킹,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케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 6월 빅뱅, 5월 빅뱅 넘어서나 '차트 올킬'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빅뱅이 6월 컴백과 함께 국내의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또 다시 '빅뱅 파워'를 입증했다.

2일 0시 공개된 빅뱅의 신곡 '뱅뱅뱅 (BANG BANG BANG)'과 'WE LIKE 2 PARTY'는 2일 오전 7시 기준 멜론, 엠넷, 벅스, 올레, 지니,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몽키3, 소리바다 등 국내 9개 음원차트 1, 2위를 올킬하며 막강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는 빅뱅이 5월 1일 발표한 'LOSER'가 3위, 'BAE BAE'가 6위에 오르면서 톱10 중 무려 4곡이 빅뱅의 노래들로 채워져 있어 '빅뱅 파워'를 더욱 실감하게 한다.

해외에서의 인기바람도 거세다. 아이튠스 싱글차트에서 '뱅뱅뱅'이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8개

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 65위,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87위에 올라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뱅뱅뱅'에 이어 'WE LIKE 2 PARTY'도 홍콩, 마카오 등에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에서의 인기 또한 뜨겁다. 중국 최대 포털 QQ의 음원사이트 QQ뮤직에서 빅뱅 신곡 공개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디지털 음원 예약 판매 페이지가 오픈한 가운데 하루 만에 약 80만명이 예약구매를 하며 빅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음원과 동시 공개된 '뱅뱅뱅'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서 2일 오전 7시 기준 123만 5729뷰를 기록하며 공개 7시간여만에 120만뷰를 돌파,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화려하고 감각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뱅뱅뱅' 뮤직비디오는 강렬한 색감으로 영상미를 더했으며 멤버들의

역동적이면서도 여유로운 퍼포먼스가 눈길을 끈다.

빅뱅은 지난 5월 1일 3년여만에 발표한 신곡인 'LOSER'와 'BAE BAE' 두 곡으로 한 달여 동안 음원차트 정상을 지켰고,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를 휩쓸면서 인기몰이를 이어간 가운데 6월 공개한 'MADE' 시리즈 두 번째 앨범 'A'의 '뱅뱅뱅'과 'WE LIKE 2 PARTY'로도 차트 정상을 휩쓸면서 가요계를 빅뱅 천하로 만들고 있다. 특히 빅뱅은 신곡 발표를 1시간 앞둔 1일 밤 11시 '카운트다운 라이브' 생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빅뱅은 8월까지 매달 1일 한 곡 이상이 수록되는 싱글 앨범을 공개하며 9월 1일에는 'MADE' 앨범을 발표한다.

reddgreen35@news1.kr

## 엑소 정규 2집 100만장 돌파

'LOVE ME RIGHT' 공개까지 '적수 없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엑소 정규 2집 100만장 돌파 소식이 전해져 가요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엑소는 3일 정규 2집 'EXODUS'(엑소더스) 75만3860장, 2집 리패키지 'LOVE ME RIGHT'(러브 미 라잇) 37만1160장 등 총 112만5020장의 판매고를 세우며 정규 앨범 2장 연속 앨범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엑소는 이날 0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전

곡 음원을 공개했다. 타이틀 곡 'LOVE ME RIGHT'(러브 미 라잇)은 공개 직후 멜론, 올레뮤직, 엠넷, 지니,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벅스, 소리바다, 몽키3 등 9개 음악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를 싹쓸이했다.

6월 대형 가수들이 컴백 소식을 전한 가운데 엑소가 대세 아이돌을 넘어 명실상부한 가요계 최강자임을 입증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엑소 정규 2집 100만장 돌파, 역시 엑소다", "엑소 정규 2집 100만장 돌파, LOVE ME RIGHT 뮤직비디오 멋지다", "LOVE ME RIGHT, 노래 정말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ddgreen35@news1.kr



## 걸스데이, 정규앨범으로 7월 컴백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4인조 걸그룹 걸스데이(소진 유라 민아 해리)가 1년 만에 컴백한다.

3일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걸스데이는 오는 7월 6일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팬들을 찾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달링' 이후 1년 만에 컴백하는 걸스데이는 그동안 '기대해' '여자대통령' '썸씽' '달링' 등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에 힘입어 음악사이트와 방송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대세 걸그룹의 입지를 키워왔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타이틀곡 선정이 오래 걸려 애초 계획보다 컴백이 많이 늦어져 꼭 1년만에 컴백하게 됐다"며 "신중하게 곡을 결정한 만큼 많은 분들이 걸스데이의 새 앨범을 좋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걸스데이는 앨범 발매 당일 쇼케이스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kun1112@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5월 25일 ~ 5월 31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2.7%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1.2%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7.2%
4	KBS1	KBS9시뉴스	17.0%
5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3.5%
5	KBS2	해피선데이	13.5%
7	MBC	무한도전	13.1%
8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2.7%
9	KBS1	가요무대	12.6%
9	KBS2	개그콘서트	12.6%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2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3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4	SBS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5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6	SBS	월화드라마(풍문으로 들었소)
7	MBC	월화드라마(화정)
8	KBS2	금토드라마(프로듀사)
9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 지켜라)
10	KBS1	인간극장 2015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꺼내 먹어요	Zion.T
02	LOSER	BIGBANG
03	마음	아이유
04	BAE BAE	BIGBANG
05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06	아예 (Ah Yeah)	EXID
07	동네술집	허각, 정인
08	어머님이 누구니 (Feat. 제시)	박진영
09	View	샤이니
10	연예할래	박보람

## 숫자 퍼즐 (Sudoku)

				4		9		
6	2							
	1			2	8	7		
5	9			7	3		4	
		7	6		4	1		
	3		9	8			7	5
		9	2	1			8	
							6	9
		3		6				

6월 7일 - 6월 13일

#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천천히 생각해 본 후에</b></p> <p>● 운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을 느낄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예상치 않았던 변수의 작용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약간의 차질이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아질 것이니 금전문제도 무난하게 풀립니다. ● 애정: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본 후에 결론을 내리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b>소띠   인간만사가 다 새옹지마이니</b></p> <p>● 운수: 인간만사가 다 새옹지마이니 용기를 내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것도 보게 됩니다. ● 금전: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면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도 실속이 없을 때입니다. ● 애정: 현재 감정 상태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충동을 피하고 침묵을 지키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p><b>범띠   순발력 있게 처신해야</b></p> <p>● 운수: 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능력을 백분 활용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순발력 있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평소보다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결혼에 실패한 경우에는 아픔을 달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적극성을 띠어야 새로운 인연과 이어질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토끼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b></p> <p>● 운수: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살펴보고 일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 애정: 가까운 사이일수록 일단 말을 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신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2일 길일. 11, 13일 주의.</p>	<p><b>용띠   금전관리를 철저히</b></p> <p>● 운수: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씩 진행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조용히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니 다소 불안한 상태입니다.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주위로부터 소개나 추천하는 말만 믿고 따라가는 일은 위험합니다. 안이한 결정이나 타협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3일 길일. 7, 12일 주의.</p>	<p><b>뱀띠   기대 이상의 효과를</b></p> <p>● 운수: 사업가는 적극적인 판매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나아지니 비상금도 비축해 둘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위기에까지 갔던 애정문제는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은 새로운 로맨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2일 길일. 7, 13일 주의.</p>
<p><b>말띠   건강에 유의하고</b></p> <p>● 운수: 성급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심리적 갈등으로 힘들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 금전: 밀어붙이려는 의욕에 비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 애정: 자칫하면 감언이설에 속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로 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b>양띠   모처럼 오는 기회를 잘 잡아야</b></p> <p>● 운수: 큰일을 앞두고 주춤하다가 상승세를 놓치게 됩니다. 모처럼 오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예상외의 지출이 늘어나서 은행잔고가 줄게 될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많지 못한 편입니다. ● 애정: 당장 달콤하게 해주고 관심을 쏟아주는 일에만 안주하다가 장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서로를 생각해 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1일 길일. 7, 9일 주의.</p>	<p><b>원숭이띠   낙관적으로 생각하도록</b></p> <p>● 운수: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중되어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 금전: 착실하게 하던 일만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금전은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껴야 남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접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3일 길일. 7, 10일 주의.</p>
<p><b>닭띠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니</b></p> <p>● 운수: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결함부터 찾고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금전: 돈을 먼저 쫓아가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타고난 몫은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애정: 어느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면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에게 맞서는 것은 무모하니 참도록 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0일 길일. 7, 8일 주의.</p>	<p><b>개띠   되로 주고 말로 받는</b></p> <p>● 운수: 두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 금전: 대외적으로 피땀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겠습니다. ● 애정: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하게 다가보세요. 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b>돼지띠   바쁘게 뛰어야</b></p> <p>● 운수: 외부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쁘게 뛰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착실하게 모아서 크게 쓸 수 있도록 미미미미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녀를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설득력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기대를 걸면 부담감을 주고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 원빈 이나영 결혼, 영화 속 한 장면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원빈 이나영 결혼사진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스타의 결혼식 모습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원빈과 이나영은 지난달 30일 원빈 고향인 강원도 정선 덕우리에 있는 들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3년간 사랑을 이어왔다. 신비주의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결혼식도 비밀스럽게 치르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원빈, 이나영 소속사 측은 "만나고 사랑하고 마침내 하나되기를 결심한 이후 긴 시간 그려왔던 둘만의 결혼식 풍경이 있었다. 둘이 함께 예식이 열릴 들판을 찾고 테이블에 놓일 꽃 한송이까지 손수 결정하며 하나하나 준비해 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원빈과 이나영은 평생을 약속하는 자리인 만큼 가족들과 최대한 조용히 식을 치르고 싶었던 것으로 전

해졌다. 두 사람은 방배동 서래마을에 있는 원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각자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원빈 이나영 결혼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원빈 이나영 결혼사진, 이런 결혼식은 처음", "원빈 이나영 결혼사진, 진짜 영화 같다", "원빈 이나영 결혼사진, 대단한 커플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ppbn@news1.kr

## 빅뱅 태양-민효린, 열애 인정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빅뱅 태양과 배우 민효린 소속사 측이 열애를 인정했다.  
태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오후 "민효린과 사귀는 것이 맞다. 축하할 일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효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태양과의 열애설이 사실임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여자라서 먼저 열애설을 선뜻 공개하기가 꺼려졌다. 예쁘게 봐달라" 고 전했다. 앞서 민효린은 소속사 측을 통해 "개인적인 사정이라 알려드리기가 곤란하

다" 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열애설을 인정했다.  
이로써 YG와 JYP 두 대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만남으로, 또 한쌍의 아름다운 연예계 커플이 탄생했다.  
한편 민효린은 지난해 6월 공개된 태양의 2집 앨범 '라이즈' (Rise)의 수록곡 '새벽 한 시'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태양과 민효린은 진한 키스를 나누는가 하면, 진한 베드신을 연출해 큰 화제를 모았다.  
kun1112@news1.kr



## 유병재, YG 패밀리 합류, 어떤 활약 보이려나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방송작가 유병재가 YG패밀리가 됐다.  
4일 YG 공식 블로그에는 "웰컴투 와이즈 유병재. 2015. 6. 4. 오늘부터 출근"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병재가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발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포스터가 게

재되며 유병재의 YG 합류 소식을 알렸다.  
방송작가이면서 뛰어난 개그 감각을 선보이며 방송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유병재는 최근 MBC 간판예능 '무한도전'의 '식스맨' 편에서 후보군으로 참여해 존재감을 과시하

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유병재는 타고난 예능감으로 tvN 'SNL코리아'의 작가로 활약했고, 코너 '극한직업'을 통해 연예인 매니저로서의 삶을 실감나게 연기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등 요즘 세태를 꼬집는

촌철살인 풍자 등을 통해 '유병재 어록'을 탄생시키는 등 비상한 두뇌를 지닌 반전 매력으로 '대세' 반열에 올랐다.  
YG는 유병재가 뛰어난 재치와 감각을 지닌 방송인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관련 작가로서의 활용도도 높게 인정해 영입을 결정하게 됐다.  
kht@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글' 박한별 "100% 솔직, 계산된 행동 없었다"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정글의 법칙' 박한별이 정글 체험을 공개했다.

박한별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SBS 목동사옥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in 압' 제작발표회에서 "극한의 상황에 있다보니까 '어디서 잘까, 뭐를 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 어떤 모습, 이미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촬영 당시를 회상했다.

박한별은 이어 "방송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기억이 안난다.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난다. 100% 솔직하게 했는데 이 솔직함이 장점이 될지는 방송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출연 섭외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는 박한별은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여배우들을 보니 벌레도 먹고 잘 먹고 뭐든 잘 먹고 잘하더라. 그런 여배우들에 비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못해서 안 좋게 비춰질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나 싶었다. TV로만 보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꿈만 같다"고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 in 압'은 도심을 벗어나 거친 대자연, 그것도 낮은 정글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생존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김병만, 류담, 윤상현, 류승수, 배수빈, 이정진, 은지원, 박한별, 이이경, 정진운, 다솜 등이 출연한다. 오는 29일 밤 10시 첫 방송.

lee1220@news1.kr

#### 티보플레이 5월 4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2  | MBC | 불굴의 차여사    |
| 3  | MBC | 딱 너 같은 딸   |
| 4  | SBS | 달려라 장미     |
| 5  | MBC | 여자를 울려     |
| 6  | SBS | 풍문으로 들었소   |
| 7  | MBC | 화정         |
| 8  | KBS | 프로듀사       |
| 9  | KBS | 가족을 지켜라    |
| 10 | KBS | 인간극장 2015  |

#### 티보플레이 5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가면          |
| 2 | CJ E&M | Get It Gear |
| 3 | CJ E&M | 촉촉한 오빠들     |
| 4 | SBS    | 정글의 법칙 in 압 |
| 5 | KBS    | 멤네이션 2부작    |
| 6 | KBS    | 오! 할매       |

#### 티보플레이 5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연애의 맛    | 오지호/강예원 |
| 2 | 위험한 상견례2 | 진세연/홍종현 |

### '연애의 맛' 강예원 "비뇨기과 여의사 役, 생소했지만 재미있어"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배우 강예원이 비뇨기과 여의사 역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강예원은 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연애의 맛'(감독 김아론) 제작보고회에서 "비뇨기과 여의사 역이 직업 상으로는 생소했다. 한국에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비뇨기과 여의사들에게 남다른 고생이 있었을 것 같더라"며 "극 중 남자의 은밀한 사이즈 등을 담당했다. 그게 주된 역할이었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예원은 '연애의 맛'에서 대담한 성격과 질주하는 본능으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뇨기과 의사가 된 길신설 역을 맡았다. 길신설은 전문가답게 남자들의 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수준급이나 실제로는 제대로 된 연애 경험조차 없는 연애 초보자.

'연애의 맛'은 여자 속판 알고 정작 여자 마음은 모르는 허세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 왕성기(오지호 분)와 남성의 은밀한 그곳을 진단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은 전무한 입담 좋은 비뇨기과 전문의 길신설(강예원 분)의 로맨스를 그리는 코미디 장르의 영화다. 오는 5월7일 개봉.

aluem\_chang@news1.kr



# TBO PLAY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 6월 특별 할인

6월30일까지 모든 신규 가입자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무제한 시청 월:

# \$29.99

(정상가: \$39.99)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1회

## 오감(五感, five senses)을 일깨우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진다.

"이제 모든 게 귀찮아!"  
"밖에 나가는 것조차 번거롭고..."  
"누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

이렇게 삶이 귀찮아질 때가 있다. 나이가 들었던 그렇지 않은 간에 심신이 고달파 삶이 인생이 모두가 귀찮게 느껴지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이렇다고 무작정 귀차니즘에 빠져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거기서 머물고 주저 앉으면 지는 것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지는 것이다. 진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내 삶을 포기한다는 어리석음인 까닭에 그렇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기운이 쇠약해 지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늙음의 속도가 같지 않다는 얘기다.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보양식을 먹고 꼬박꼬박 몸에 필요한 필수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로움과 정신적인 채움이 더욱 중요한 것이

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무뎠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더욱 그 감성을 느끼려 노력하라는 것이다

"오감(五感, five senses)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을 통틀어 말하며 감각을 수용하는 수용기에 따라 분류한다. 시각의 감각 기관은 눈으로 수용기는 망막에 있고, 청각의 감각 기관은 귀로 내이의 달팽이관 속에 수용기가 있다. 후각은 코이며, 수용기는 비점막 속에 들어 있고, 미각은 입 안의 혀이며 수용기는 혀의 미뢰 속에 있다. 촉각의 감각 기관은 피부이다. 이들 각 수용기는 특수한 자극인 적합자극만을 받아들여 흥분한다. 인간에서 외부 자극의 인지는 이 오감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감각은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옛것은 가깝게 지내는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 나이가 드니 기뻐하는 감정이 점점 사라진다는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듯 나이 어린 내게 친구처럼 당신의 지금의 마음을 요즘의 감정을 들려주시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자꾸 감성을 일깨우려 애쓰고 계신다고 말이다

. 산을 좋아하시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만약 산이 없었다면 지금쯤 감성이 메말라 있을 거라고 하시며 애길 건네주신다. 그분 곁에서 들으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연세에 얽매이지 말고 예쁜 꽃을 보면 화들짝거리며 예쁘다고 하고 좋은 일에 팔짝 뛰며 기뻐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해지면 질수록 마른 땅은 푸석푸석 바람에 흩바람만 일으키지 않던가. 그렇지만, 하늘과 땅을 이어 비라도 한차례 시원스레 내릴라치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비로 흩바람을 일으키던 땅은 촉촉해지고 결의 풀잎이나 꽃잎들에 쌓인 먼지도 닦이지 않던가 말이다. 이렇듯 메마른 땅에 비가 부어지듯 나이 들어 잃어가는 마음의 감성의 땅에도 가끔은 비를 주듯이 감성을 일깨워 주어야 삶이 더욱 맑아지고 밝아져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 않을까 싶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나 아닌 결의 다른 사람도 돌아보며 챙기게 되니 자신은 더욱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그 무엇이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가진 것에서밖에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

었던 그 외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간에 내게 있는 것밖에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내 기쁨을 한껏 즐거움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또 있겠는가. 슬픔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순간과 찰나의 삶 속에서나 긴 인생 여정에서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어찌 내 것 네 것이 따로 있을까. 살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던 누구에게나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일인 것을 말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찌 내일을 알 수 있을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그저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행복을 만나고 느끼고 누리려는 일인 것이다. 그것의 크고 작고 역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저 주시는 만큼에서 그 기쁨과 행복도 누리고 슬픔과 고통 역시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어 숨을 쉬는 동안만큼은 감성마저도 죽지 않도록 오감(五感, five senses)을 일깨우며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는 삶이길 소망해 본다. 혼자이지 않은 세상에서 더불어 호흡하며 서로에게 좋은 기운(에너지)을 나누고 싶은 까닭이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한담객설閑談客說:

## 날카로운 첫사랑의 키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날이 후텁했다. 그 다음날은 갑자기 서늘해졌다. 날씨가 급히 변하니 몸이 따라갈 수 없다. 여름을 넘길 채비는 다 하셨는지. 월하越夏준비 말이다. 보스톤 여름은 습하고 무덥다. 그래도 겨울보단 백 번 낫다.

모든 담임선생님 성함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다. 고난?의 중학교 삼학년이였기에 그런가. 그때 담임선생님 성함만은 떠올릴 수 없다. 초등학교 일학년, 이학년은 같은 선생님이 담임하셨다. 고운 처녀 선생님이셨다. (지금 선생님 모습을 떠올리면, 약간 빼덩니에 주근깨가 제법 있었던가) 선생님은 검정 스커트와 흰색 브라우스 자주 입고 계셨지 싶다. 게다가 검은 구두에 흰양말이 매우 매력적이었더랬다. 쳐다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나른해졌다. 내가 조숙했던가. 분냄새라고는 전혀 맡아 보지 못하며 자란 나에게, 선생님의 로션냄새는 혼몽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갔

다. 선생님이 내 첫사랑이었던 모양이다. 만해의 님의 침묵이다. 국어시간에 이 시를 배우며 머리 큰 고등학교 이삼학년 사내님들은 입맛을 다셨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란 구절에 정신이 산란해졌던 거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만해, 님의 침묵)

과문한 탓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제야 알았다. '첫사랑같이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을 어찌 화학이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첫사랑은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인데, 화학이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다. 아인슈타인은 생각이 과학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싶다. 내가 말을 바꾼다. '첫사랑은 생물학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첫사랑은 인문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하려 해서는 안된다.'

신문컬럼에서 첫사랑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장석주 시인의 시를 인용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얼마나 치열했으면.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나에게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바다에 온몸을 던질 용기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 옛적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향한 사랑은 첫사랑이 아닌 모양이다. 내 아내를 위한다면, 바다에 온몸을 던질수 있지 모른다. 아내는 내 첫사랑인가? 아내의 말이다. '니 첫사랑은 나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웃었다.

날은 더워져 가는데, '첫 사랑의 날카로운 키스/날카로운 첫사랑의 키스' 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웬일인지. 만해의 '님의 침묵'을 다시 읽으니 그런가. 세월이 가도 첫사랑의 기억이 날카로워 그런가. 첫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더욱 또렷한 그림자가 남아서 일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말도 같이 나온다. 진부한 표현이기는 해도 여전히 아련하다. 여름은 다가오고, 내리꽃은 한낮 햇빛은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4)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 원주민과 유럽인과의 첫 만남 (2)

대서양 직항로 개척을 위한 벤처사업 (계속)

아라와크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 장식품들은 멕시코로부터 유입된 것일 뿐 히스파놀라섬에는 금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침입자들은 원주민들에게 일정량의 금을 주기적으로 갖다 바칠 것을 강요하였다. 초기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갖다 바쳤지만 더 이상 금을 구할 수 없게 된 원주민들에게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형벌이 가해졌다. 원주민들의 손목을 잘라 버렸고, 손목이 잘린 인디언들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콜럼버스와 그의 부하들의 만행이 두려워 카사바라는 독성식물을 먹고 자살을 선택하는 원주민들도 많았다.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도 노예로 끌려가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스페인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만행은 2차 항해에 이어 콜럼버스의 3차와 4차 항해를 포함하여 초기 식민지 건설 기간 동안 내내 계속되었다. 이러한 만행들에 관하여 라스 카사스는 생생한 기록을 남겼으며 드브라이는 매우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서 후세에 전하였다. 라스 카사스의 기록에는 콜럼버스가 예쁜 원주민 여자들을 납치하여 선

원들에게 성노리개로 선물하였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인들은 자신의 칼의 성능을 시험한다면서 살아 있는 인디언의 몸을 토막 내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짓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1494년에 라스 카사스가 처음 왔을 때에는 300만 명이 넘던 아라와크족의 인구가 1508년에 다시 왔을 때에는 6만 명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본토 원주민과 유럽인과의 첫 만남 영국 왕 헨리 7세의 후원으로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캐봇(John Cabot)이 1497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역을 탐험한 것을 유럽인이 북아메리카 대륙 본토에 처음 도착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물론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보다 약 500년 앞서서 바이킹족인 에릭슨(Leif Ericson)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발판으로 하여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정착촌을 건설한 사실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이곳에서의 거주가 그 후로 계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말았다. L'Anse aux Meadows 라는 이름의 이 고고학 발굴 유적지는 197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미국 본토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스페인 탐험가 Ponce de León이다. 그는 세척의 배와 200명 이상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1513년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를 떠나 플로리다에 도착한 적이 있다. 본격적인 본토 침입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52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해 4월 12일 히스파놀라섬(Hispanola)의 산토도밍고(Santo Domingo)를 출발한 나르바에즈(Pánfilo de Narváez) 원정부대가 플로리다의 탬파베이에 도착하였다. 원정대는 육로로 9월에 아팔라치만(Apalachee Bay)까지 북진한 후 다시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서쪽으로 진행하여 미시시피 강 입구를 지나쳐 11월에 텍사스의 갈베스턴(Galveston)에 이르렀다. 원정부대와 원주민간에 몇 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국 본토에서의 첫 교전이 되는 셈이다. 원정대의 원래 규모는 약 600명이었으나 식량부족, 전염병, 인디언의 공격 등으로 아팔라치만을 떠날 무렵에 그 숫자는 242명으로 줄어들었고 갈베스턴 인근에서는 허리케인을 만나서 거의 다 사망하고 단지 80명만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텍사스 내륙을 통과하여 멕시코로 출발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단지 네 사람만 살아남아서 1536년에 멕시코 시티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내륙 깊숙이 7개

의 황금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원주민으로부터 들었다고 황당한 보고를 하였다. 이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 몇 년 뒤 스페인의 두 정복자(Conquistador)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미국 남부를 다시 침입하게 된다.

원주민에 대한 가혹행위는 미국 본토 사정도 서인도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페인 탐험가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가 1539년 5월 9척의 배를 이끌고 오늘날 플로리다 주 탬파베이에 도착하였다. 이 때 600여명의 사람과 200여두의 말도 함께 왔다. 그의 일행은 플로리다와 조지아를 지나 북쪽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테네시 주를 거쳐 앨라배마 주로 남하였다. 이곳 앨라배마 남부의 마빌라(Mabila)에서 원주민과 큰 전투를 벌였다. 9시간 정도의 싸움에서 스페인군은 약 200명이 사망하고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말하자면 스페인 부대는 상처뿐인 승리를 얻은 셈이 됐다. 원주민은 스페인보다 훨씬 피해가 커 2000~6000명이 목숨을 잃고 마을은 불에 타 없어져 버렸다. 아마도 단일 전투의 사상자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마빌라 전투가 북미대륙 최대의 전투가 된다.

(다음 호에 계속)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4 최흥희와 태권도(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중국과의 수교는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2년 8월에 맺어졌다가 없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태권도(122)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처음 소개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1988년 태권도가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스포츠화됨에 최흥희는 심한 위기감을 느꼈다. 1970년대 초에 뒤늦게 창설한 WTF였지만 김운용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제무대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면서 성장한 이 기구는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국제스포츠면에서나 세계 무도계의 영향과 견인에서 ITF를 압도하고 있었다. 특히 1988년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선정된 태권도의 호응도는 세계태권도계를 열광하게 하였으며, 그 주관 국제기구인 김운용이 총재로 있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의 입지는 한층 더 격상되었다. 반면에 국제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져만 가는 최흥희는 1988년 4월 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마란치 위원장 앞으로 장문의 호소문을 보냈다. 즉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태권도는 가짜이며, 어떻게 그리고 왜 세계태권도연맹이 뒤늦게 태권도의 탈을 쓰고 나타났는가를 인식해야 된다는 내용과 '태권도'란 명칭도 자신이 작명한 것을 사용하며 경기내용과 규정을 모두 가라데와 비슷하기에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없

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정통태권도 단체인 국제태권도연맹(ITF)을 국제 대표기구로 인정해 줄 것과 ITF태권도의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데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를 주관하는 IOC와 세계 태권도를 이끄는 인사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김대중정부 당시인 1998년, 부모묘소에 성묘하기 위하여 조국 방문을 희망하는 요청을 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그는 1972년 떠난 조국을 다시 밟아 보지 못했다.

121) 최흥희가 태권도의 창시자는 아니다. 당시 수련하고 있던 무술인 당수도/공수도에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 과 비슷한 발음을 찾아서 태권도跆拳道라고 작명하였다. 하지만 많은 무도계의 사람들이 그를 태권도의 창시자로 알고 있고, 국제태권도연맹(ITF)에서는 그 기구 창설 이후 그를 창시자로 줄곧 선전하기에 많은 일반인들은 그런 줄로 알고 있다. 1992년에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도 원본에 태권도 창시자를 '최흥희' 로 명기했다.

122) ITF 태권도, 또는 북한식 태권도, 물론 그 후 중국도 WTF 스타일의 태권도를 받

아들여 수련하고 있다.

WTF 스타일의 태권도는 1992년 12월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최광윤 체육총회 부주석의 주선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북경대학교와 연변대학교에서 시범과 세미나를 하여 일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1993년 1월과 1994년 8월 국기원 시범단이 또 다시 심양, 하얼빈, 상하이, 북경, 천진 등 무술의 본고장을 순회 시범하면서 태권도의 진수를 펼쳤고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그 시범의 열기가 가기도 전 1994년에 IOC가 태권도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는 태권도가 금메달의 유력종목이라고 판단하고 각급학교를 비롯하여 널리 보급하면서 1995년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1994년 IOC가 태권도를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일본(가라데)과 중국(우슈)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무술계의 반대와 방해공작 등은 대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외의 태권도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으로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리더십은 더욱 부각하였다.

자칭 '태권도 창시자' 121) 인 최흥희는 1980년 김일성을 만나 전향한 후 북한의 지원하에 공산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태권도 보급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1983년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였고, 그의 계속되는 반정부 언행으로 태권도계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군생활에서 맺어진 극소수의 '총복' 들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한편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을 세계 태권도를 통괄하는 단체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흥희는 1984년 자신의 국제태권도연맹(ITF)과 WTF의 통합을 제안하였고, 1985년에는 IOC위원 총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WTF와는 별도로 ITF를 세계 태권도를 이끄는 한 축의 공식기구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모두 허사로 돌아 갔지만 ITF의 국제적인 인지도는 높아졌고, ITF 스타일의 태권도 수련자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는 1986년에 시범단을 구성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당시는 한중수교(우리나라와

# 브라이트 소재 저렴한 기숙사

## 무술 연마와 기숙생활 함께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20분 예불후 조식, 각자 학교 및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각자의 종교 생활(기독교, 천주교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월 \$950

조식, 석식 및 수련비 월\$120 포함

단기숙박 가능: 3개월(월\$1,200), 6개월(월\$1,100)

- 주차 가능 (월 \$100 주차비)
- 실검도 18개월 수련후 단증 수여
- 매월 첫째 금요일 저녁 6시-7시 30분 무료 참선
- 전화 연락후 상시 방문 가능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오픈 하우스)



심검도 창시자 김창식 (원광 스님)  
41년째 심검도 전수 및 제자 양성

# 심검도 회원 모집

심검도 검법, 심법

### 종교와 관련없이 수련 가능

(불교 신앙 생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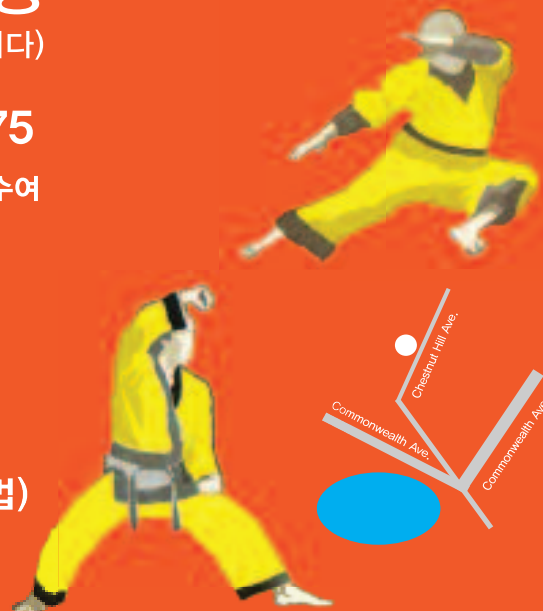
수련비: 성인 월\$120, 어린이 월\$75

성인18개월, 어린이36개월 수련후 단증 수여

### 수련 시간

어린이: 화,목요일 오후 5-6시(심법)  
수요일 오후 5-6시(검법)  
토요일 오전 9-10시(검법)

성인: 월-목요일 오후 6-7시30분(검법)  
토요일 오전 10-12시(검법)



# 617.787.1506

203 Chestnut Hill Ave. Boston, MA 02135  
www.shimgumdo.org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아무리 완벽히 편집을 해도, 원본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국 메르스 확산을 우려하며-

지금 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어 가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감염병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 금언처럼 한국은 잘못된 정보와 루머로 점점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어 깊은 우려가 느껴진다. 한 예로,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는 A씨는 메르스가 처음 발생했다는 지역에 골프 외출을 했다가, 현지 보건소의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만약, 정부가 메르스 발생 직후 이 위험을 편집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다면, A씨는 11일 까지 자가격리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 소문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메르스 공포 현상' 이 대치동을 강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휴교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도 많이 걸어, 교무실 업무가 마비될 필요도 없었고, D초등학교와 여러 학원이 휴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B병원 메르스 감염자들이 증상 발현 후, 뒤늦게 격리된 것은 한국 보건당국이 얼마나 허술하게 메르스 발생의 원본을 편집했는가를 의미한다. 결국, 2차 감염자에 대한 격리가 늦어지면서 메르스 감시 대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가 1천300명을 넘어섰고, 이중 감염 의심자가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듀사' 는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스란히 담은 리얼리티 드라마' 로 PD들의 '일과 사랑' 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인지 편집에 대한 장면과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탁예진(공효진) PD는 오랜 친구 관계인 라준모(차태현) PD를 연애 감정으로 혼자 좋아하며 힘들어 하다가, 술 기운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고 만다. 아침에 깬 후, 라준모가 혹시 술이 취해서 자신의 말을 알아 들었는지 궁금했다. 부하 직원인 백승찬(김수현) 신입 PD에게 사실 여부를 알아올 것을 명령한다.

라준모가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몇 번 시도하던 백승찬은 탁예진에게 묻는다. "라 선배가 왜 기억을 꼭 못 하셔야 합니까? 선배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으면, 라 선배가 기억을 하던 안 하던 무슨 상관인가요? 만에 하나 선배님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라 선배는 더욱 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탁예진은 말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거든. 기억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진심을 편집해버린것이 아닐까?"

사실 라준모가 다 기억하고 있음을 알고 난 후, 백승찬은 말한다. "혼자서 좋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이려면 그 마음 알아놓고는 이렇게 모른 척,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안나는 척 거짓말로 편집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집을 했어도 원본은 남으니까요."

편집이란 '화면 조각 하나를 다른 하나와 단순히 접합시키는 작업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 내고, 맘에 드는 장면들을 이어가는 것이 편집의 가장 기본된 속성이다. 드라마, 소설, 영화같은 가상의 세계에서는 편집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상세계가 아닌 사람과 더불어 사는 현실의 삶에서 관계를 자주 편집해서 살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사람들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에 빠져들어 갈 것이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용어이다. '리플리 병' 또는 '리플리 효과' 라고도 한다

리사는 테라피를 통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깊은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대학교 때 유럽 여행을 갔다. 원나이트 스탠드의 관계를 맺었다. 미국에 돌아와

몇 달 후, 임신 여부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는 것에 두려움, 창피함에 혼자 몰래 임신 중절을 단행했다.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는 임신중절 사실을 철저히 은닉하여 편집시켜버리면, 그녀가 겪었던 이 고통의 원본 사실은 삭제된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자신도 모르게 근 250 파운드가 넘을 정도로 살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남친을 사귀는 일에 자신이 없어지며, 공부와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른 초에 이미 그녀는 한 은행의 부지점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도 자신의 비만은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친한 친구들이 결혼과 가정을 갖기 시작하면서, 리사는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지면서 불안증과 우울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임신 중절 이후, 성당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임신중절은 잘한 일이었다고 믿지만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하느님을 구태여 찾을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이렇게 그녀의 편집된 원본은 몇 번씩 더 편집과정을 겪었고, 결국은 무엇이 원본인지조차 구분을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무의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의식이 감당하기 힘들어 그녀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망각으로 지워버렸고, 그녀가 편집한 허구를 진실이라 믿는 '리플리 증후군' 에 빠지게 했다. 남자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게 비만으로 자신을 단죄하며 연애를 거부했고, 섹스리스가 되어 '성' 관계를 거부했다. 너무나 기막혔던 자신의 실수를 식구들과 친척들이 알까, 공부와 일만 하는 모범생이 되어 칭찬을 자자하게 들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행복 한 척 자신을 편집했건만, 그녀의 원본의 죄는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채 그대로 있으면서 그녀를 불행하게 했다. 자신의 원본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살이 저절로 빠지기 시작했다. 일

년의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그녀는 무려 80파운드가 빠졌다. 다시 매력을 되찾으면서 그녀는 데이트를 하는 것에 자신을 얻기 시작했다.

사는 것에 권태감이 온다는 브라이언이 테라피를 요청했다. 그는 몇 년 전, 내연녀와의 불륜 관계가 있었다. 부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내연녀를 집착녀로 만들어서 매정하게 관계를 정리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가정을 지킨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잘한 일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연녀가 마치 자신을 스토킹을 한 마냥 모든 죄를 덮어 씌우며 끝을 냈던 자신의 비겁함이 자꾸 되살아나 괴롭다고 했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자신이 이룬 성공을 잃을까 두려워 부인 앞에서 텍스트를 보냈다. 그녀의 집착으로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온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밀어부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녀는 침묵했다. 차라리 욕이라도 했다면 훨씬 덜 괴로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편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은 그대로 저장되어 자신을 지키는 것을 힘들게 했던 것이다.

라준모는 편집에 대해 "더 좋은 걸 위해서 그냥 좋은 걸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며 "안 그러면 둘 다 잃게 될 수가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혹시, 라준모가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메르스 발병의 원본 사실을 삭제하는 이유가 국민의 공포심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편집해서 이야기 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공포심은 더욱 가중화 하여 갈 것이다. 널리 대중화한 SNS의 사용은 잘못된 정보와 루머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 챗 등 수많은 SNS의 정보는 현실과 가상공간의 '나' 사이의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의 편집에 빠져들어가며 리플리 증후군을 겪게 될 수 있다.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mailto: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앤티비( *enjoy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 6월 특별 할인!

## 무제한 시청 월 \$ 29.99

6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5) 상승하는 주식시장

지난 6년 전 3월 9일 S&P 500지수는 676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1년 반 사이에 무려 56%가 폭락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당시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더 하락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8년 이상이 걸린다고 자신있게 예측했습니다.

해리 덴트(Harry Dent)의 '대공황이 온다(The Great Depression Ahead)' 라는 책은 인기 도서(best seller)를 기록하며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파산 등과 함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시대가 종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3월 초 S&P 500지수는 2,071로 마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식시장은 매년 상승하는 분

위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80%를 대표하는 S&P 500지수는 6년 전 최저점에서 2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주식시장(Vanguard Total Stock Index Fund)은 25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균 수익률이 무려 23.6%이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10,000달러를 위에 언급한 배가드 종목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투자한 시점이 역세계 운이 나빠서 주식시장 최고점이었을 때입니다. 최고점이었던 날짜는 2007년 10월 9일이었고 S&P 500지수는 1,565 포인트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투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실 잊고 싶었던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연히 재정문서를 열어 보았습니다. \$10,000 투자가 \$15,907로 불어났습니다. 연평균 6.5% 수익률입니다.

최고점에 투자해서 반토막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원금보다 50% 더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항상 투자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언제 빠져나오나를 생각하는 마켓 타이밍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생에 좋은 시절이나 나쁜 시절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주식시장도 이와 비슷하다.

\*주식시장은 욕심으로 가득할 때 투자 손실로 이어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투자 이익으로 변화한다.

\*자본주의는 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 위험성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것

은 인간의 본성이다. 두려움과 욕심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도한다.

지난 6년간 주식시장이 257포인트 상승했지만, 앞으로 6년 동안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앞으로 경제는 더욱 좋아질 것이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현재 주가가격이 비싸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식시장은 어떠한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의 예측과 예언으로 누군가 우연히 맞을 수는 있지만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6년간의 주식시장 상승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 폭락으로 암울했던 시절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본인의 자산규모, 투자 위험성,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형성해서 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8월부터 주택 거래 관련 규정 간소화

[클로징 서류]

주택 거래의 마지막 절차인 '클로징'과 관련된 규정들이 오는 8월 1일부터 대폭 개정된다. 주택구입자들의 클로징 서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은 주요 관련 서류를 수정하는 등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들이 클로징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지 못해 주택 구입 뒤 연체, 숏 세일, 차압 등의 피해 원인을 제공했던 기존 클로징 관련 규정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 ■ 서류 간소화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주요 서류들이 대폭 간소화 된다. 용자비용 내역서인 'Good Faith Estimate' (GFE)와 일명 클로징 서류로 불리는 최종 비용내역서 'HUD-1' 등의 현행 서류들이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 사라지고 대폭 간소화된 새 서류로 대체된다.

모기지 대출 신청 직후 발급되는 GFE와 초기 '대출 서류' (Truth-In-Lending Statement)는 '용자 견적서' (Loan Estimate)란 이름의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된다.

용자 견적서는 기존 서류와 마찬가지로 요약된 대출 조건과 예상되는 용자 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용이 훨씬 간소화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

최종 비용 내역서인 'HUD-1'과 최종 대출 서류 역시 '마감 공개서' (Closing Disclosure)란 새 이름의 양식으로 대체된다. 마감 공개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각종 항목의 최종비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서류로 역시 기존 서류에 비해 내용이 간략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 ■ 현행 규정 검토 시간 부족 단점

현행 클로징 규정은 주택 구입 대출자들이 수심에 달하는 클로징 서류를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클로징 서류 서명 하루 전이나 심지어 서명 당일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복잡한 내용의 대출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모기지 연체 또는 차압 등의 원인이 되기 쉽다.

CFPB 측은 "주택 구입자들의 복잡한 대출 조건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행 초기 부동산업계와 구입자들의 적응 기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3일 규정

개정안 중 서류 간소화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자의 '알 권리'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은행측은 대출 신청 후 3일 내에 용자 견적서를 제공해야 하고 주택 거래 마감 3일 전에 마감 공개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자들은 대출신청서와 최종 마감 서류에 서명하기 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용자 견적서의 경우 대출자가 대출신청을 위해 개인 정보와 재정 관련내용을 은행측에 전달한 뒤로부터 3일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대출자는 용자 견적서 내용을 검토한 뒤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출 신청 의향서에 서명을 해야 본격적인 대출 심사 과정이 시작된다. 대출 은행은 용자 견적서가 발급되고 대출자가 의향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크레딧 리포트 발급비 외의 기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 ■ 시행 초기 거래 지연 우려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투

명한 모기지 대출과 소비자 알권리 보호 등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주택 거래가 지연되는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로징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돼 정정이 필요할 경우 '3일 규정'에 묶여 주택 거래 마감일이 다시 3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새규정에 따르면 대출 은행은 클로징 서류를 수정한 뒤 다시 대출자에게 3일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셀러가 새로 구입할 주택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거래 마감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주택 거래 지연에 따른 새 주택거래가 지연되는 등 '도미노 지연' 현상까지 우려된다. 클로징 서류 발급 뒤 모기지 이자율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대출자가 고정 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동을 결정할 경우에도 클로징 서류를 새로 발급해야 하고 다시 3일을 기다려야 하는 등 지연이 불가피하다.

### ■ 타이틀 보험 '선택 사항' 문구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

새 양식에 사용된 타이틀 보험 관련 용어와 관련,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보험감독협회' (NAIC)와 타이틀 보험업계에 따르면 마감 공개서에 '주택 소유주 타이틀 보험' (Owner's Title Insurance) 가입이 '선택 사항' (Optional)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에 따른 타이틀 보험 미가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주택 구입시 가입하는 타이틀 보험은 소유권 분쟁 발생을 대비한 보험으로 대부분 가입이 권유되는 보험이다.

타이틀 보험은 모기지 대출자가 대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타이틀 보험과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등 2종류가 있다. 가주의 경

우 일반적으로 셀러가 바이어를 대신해 주택 소유주 보험 가입비를 납부하는데 만약 선택 사항이라는 문구로 인해 미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거래 지연 막으려면 소비자 노력도 필요

주택 구입자들 역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주택 거래 지연을 막기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거래가 자주 지연될 경우 거래 불발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마감 공개서가 발급되면 대출 신청 때 제공받은 용자 견적서와 바로 비교해 큰 비용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은행측에 지체 없이 정정을 요구한다. 주택 거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출 은행, 타이틀 보험 업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클로징 서류에 오류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 백성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7080 그룹사운드 보스턴 콘서트



**그 시절 그 추억을 한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장계현 (장계현과 템페스트) : 잊게해주오, 파도, 그리운건 너 ....
- 함중아 (함중아와 무서운 아이들) : 내게도 사랑이, 풍문으로 들었소.....
- 최이철 (사랑과 평화) : 장미, 한동안 땀 했었지 ....
- 이창환 (건아들) : 젊은 미소, 불놀이야, 구름과 나 ....
- 유영춘 (영사운드) : 등불, 달무리 ....
- 이천행 (딕페밀리) : 나는 못난이, 작별, 흰구름 먹구름 ....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6:00 PM**

**Woburn High School Auditorium**

88 Montvale Ave, Woburn, MA 01801

**입장권 : \$60.00**

티켓예매 : 보스턴 한인회 781-933-8855

**주최 : 보스턴 한인회**

본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협찬



주 보스턴 총영사관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전미 태권도 교육재단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 비영리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영리단체 또는 사립기업들과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봉사자들과 비영리 사업 종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고가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왔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란 자선활동,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또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나 학교와 같은 종교, 교육, 학술재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동호회나 동창회 등의 자선, 문화, 사교 등의 목적을 가진 단

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수많은 스타들의 얼음물 세제로 화제되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 를 시작한 루게릭 병 관련 재단 (ALS Association)도 이러한 비영리 재단 중의 하나입니다. 비영리 재단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단연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인정하여,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받을 수 없는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연방 세금 뿐 아니라 주에 내는 세금에도 해당되며 때로는 그 특정 비영리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연장됩니다. 먼저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협의되고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비영리 단체의 설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 정부의 회사법인 등록이 필요

합니다. 각 주의 회사법인 설립 및 등록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에 그 주의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해당 법인 등록 주관 기관은 뉴욕 주에서는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State Records 그리고 UCC이고 뉴저지주에서는 State of New Jersey와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Department of State와 Corporation Bureau입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면세 혜택 신청을 진행합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연방 세금과 주 세금 면제 혜택이 있으며 많은 단체들이 "501(c)(3)" 단체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비영리 단체이더라도 '면세 법인 자격' (tax-exempt status)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세 대상이 되므로 법인 설립 후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 자격 신

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사들을 선출하여 법인이사회를 조직하고 내규를 정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사용하게 될 사무실을 찾아 그에 따른 부동산 매매나 리스 계약 등의 세부 절차를 검토하고, 재단의 자금 운영계획 및 비영리 재단으로서의 자금 모금 방안에 대한 사전 고려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 재단 설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 2015 미국 명문 대학 정규지원 분석: 유펜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매년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의 아이비 대학 지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입학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우수한 학점 관리와 높은 SAT 1 성적,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개인적 활동과 재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반면, 다른 인종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경우를 보면, 평균 지원 학생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입학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부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인종차별과 교육 기회 불평등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명문 대학들을 압박한 결과, 최근 아시아계 학생들의 재능과 합격률 향상에 조금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명문 대학들이 표면적으로는 인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발표하지만,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의 기회에 있어 약간의 차별을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보인다. 입학 사정관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논리를 빌리자면, 각기 다른 생활 환경과 교육, 그리고 정치, 경제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통해서 훌륭한 성취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모두가 결국,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아이비

대학에 대한 입학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이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 나오게 되고, 이는 때로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반 대학들이 선호하는 학생이란 인위적인 스펙의 소유자보다는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학생인지 여부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와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희망하는 명문 대학으로의 입학 지원에 있어, 자기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에는 총 37,267명의 학생이 지원을 하여 3,697명의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 중 1,316명의 학생들이 조기 지원(ED)에서 입학허가 되었다. 유펜이 올해 목표했던 총 신입생 수는 2,420명이다. 하지만 전체 입학허가자 중, 약 66%의 학생들이 최종 입학 등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초기 목표치보다 약 20명 가량이 더 등록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의 입학 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20-60명 정도

를 대기자 명단에서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합격자들의 출신 지역을 분석해 보면, 펜실베이니아 주 출신 483명, 뉴욕 주 439, 캘리포니아 주 412, 뉴저지 주 324, 플로리다 주 157, 텍사스 주 137, 일리노이 주 123,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 121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전체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최초 대학생 배출 가정(First Generation)은 약 13%, 그리고 레가시 입학자 수는 약 14% 정도로 확인이 되었다. 이들 지원자들 중 약 91%는 학교 졸업생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유펜은 실용적인 학문의 연구를 강조하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개별 학생들의 선정된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이해와 이를 위한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유펜은 다른 아이비 대학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점과 SAT 성적, 그리고 리더쉽의 유무와 종류를 입학 심사에 있어 많이 고려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밝고, 뚜렷한 자신의 색깔과 함께,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유펜 커뮤니티에서 선호한다고 한다. 끝으로, 입학 허가 받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 결코 입학 확률이 높은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www.pospay24.com



#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매매가격 \$50,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